

6월 Market Index			
코스피	2544.28	코스닥	706.59
	(-31.22)		(-18.69)
금리 (한국은행)	2.881	환율 (원·달러)	1339.90
	(-0.024)		(+4.00)

‘학연 인사’ 시끄럽더니… 18개월 간 322억 금융사고

흔들리는 100년 은행

❶ 과거 구태 반복 임종룡號

조직문화 개선·혁신 약속했지만 첫인사부터 연대 출신으로 채워 직원들에 불공정 인사 인식 확산

취임 후 사기·횡령 사고만 10건 당국, 우리금융지주에 개선 압박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로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우리금융·우리은행 내부 조직문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이후 특정인맥이 주류로 부상하고, 100억원이 넘는 사기·횡령사고와 대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하는 등 감춰져 있던 조직문화의 구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서다. 직원의 신뢰를 넘어 고객의 신뢰까지 떨어뜨릴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개선할 의지가 없다며 이사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학연·지연으로 이뤄진 인사…직원 신뢰 저하

지난해 3월 임 회장은 취임하며 “우리 임직원들이 속한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금융사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다”며 “인사·평가, 내부통제, 등 조직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는 분야는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금융은 라임·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등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시기였다. 실적위주의 평가가 지속되며 불안전 판매가 이뤄졌던 만큼 객관적으로 공정한 인사·평가 제도를 통해 조직문

화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첫 인사부터 흔들렸다.

임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라임·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전 회장을 우리은행 고문으로 앉혔다. 통상 주요 금융그룹은 전임 CEO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1~2년 그룹 고문역을 맡긴다. 다만, 손 전 회장은 라임·DLF사태로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잘못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연봉 4억원을 2년간 받을 수 있도록 고문자리를 내줬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또 주요 9개 지주 부문장 중 4명을 연세대 출신으로 채웠다. 연세대는 임 회장의 모교다. 임 회장을 포함하면 금융그룹 내 주요 직 중 절반이 특정 학교 출신으로 채워진 셈이다.

이성욱 재무부문장 부사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지주에서 재무관리부 본부장, 재무기획단 상무, 재무부문 전무를 거쳐 2022년부터 재무부문장을 맡았다. 이 부사장은 임회장 취임 후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유일하게 유임됐다.

장광익 브랜드부문장 부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임 회장의 직속 후배다. 장 부사장은 전 MBN의 보도국장·기획실장으로 외부영입을 통해 부사장에 선임됐다.

이해광 경영지원부문장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은행 부산서부영업본부 영업본부장을 거친 뒤 임 회장이 내정자였던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다.

미래사업추진부문장였던 김건호 그룹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김 부분장은임 회장이 단행한 조직개편 당시 미래사업추진부문장으로 발탁됐다가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으로 이동



추석 앞두고 북적이는 전통시장

추석 연휴를 1주일 가량 앞둔 8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에 대한 인사가 연세대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돌아마자 주영공사로 지냈던 당시 알게 된 인맥을 중심으로 인사가 바뀌고 있다”며 “특정 학연, 인맥을 중심으로 인사가 나면서 인사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직원들의 인식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1년6개월간 사기·횡령만 10건…계좌 이관 요구 ↑

문제는 이 같은 인사가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사기·횡령 금융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내부의 신뢰 하락이 국민의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임 회장이 취임한 2023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년 6개월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0건으로 총 4개 계열사에서 발생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6건(311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카드가 2건(9억5800만원), 우리금융캐피탈 1건(1억 1600만원), 우리금융저축은행 1건(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임 회장이 취임한 이후 1년 6개월까지 32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는 같은 시기 취임한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2023.3.23)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36억 3730만 원)과,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2022.3.25)이 1년 3개월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65억 8560만 원)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30년 김포공항 UAM시대 연다 3조 투입… 첨단산업 도시 본격화

김포공항 혁신지구 지정 고시
UAM 이착륙장·복합환승시설 조성
경제 효과 4조, 3만개 일자리 창출

오는 2030년 서울 김포공항 일대에 도심항공교통(UAM)이착륙장과 복합환승시설이 준공돼 본격적인 ‘UAM 시대’가 열린다. 여객·물류 이동 기능이 강화되고,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돼 공항 중심의 신(新) 산업·경제 거점이 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일대(35만4000㎡)가 ‘김포공항 혁신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미래 교통 허브 및 모빌리티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 활력 도시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투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혁신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는 2033년 이후 김포공항은 UAM 이착륙장·간선급행버스(S-BRT) 등 신규 복합환승시설과 기존 도심공항 인프라가 연계된 혁신 신산업 허브로 변모한다. 시는 3만여개의 일자리와 약 4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에는 ▲국·시비

100억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 490억원 ▲민간 2조9050억원을 포함 총 2조9640억원이 투입된다.

김포공항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건립된다. 전체 면적 35만㎡에 3개 블록이 조성된다. 1블록에는 UAM 등 이착륙장과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선다. 2블록에는 항공업무시설이, 3블록에 첨단산업시설이 만들어진다.

시 관계자는 “공항과 연계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그동안 항공소음 피해와 건축 규제 등으로 소외됐던 지역과의 상생을 이끌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 1블록은 2030년, 2·3블록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도 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사업시행자)에 이어 2026년 건축 설계, 2027년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마친 뒤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김포공항 일대가 미래교통 허브이자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 활력 도시로 재탄생하도록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 애도… “친일 굴종 외교 심판할 것”
▲ 안철수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해야… ‘2026년 논의’ 대안 안 돼” /사진 뉴스1

▲ ‘전국민 25만원’에 ‘국가 책무’까지… 지역상품권, 골머리 앓는 정부
▲ 여 “이재명, 국내 주식시장 간과… ‘금투세 폐지’ 결심할 때”



▲ 조국, 영광·곡성서 월세살이… 호남 재보선 총력전 /사진 뉴스1
▲ 여, 야 한준호 의원·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등 불법시위로 고발

신동빈 “빼빼로, 매출 1조 글로벌 톱10 브랜드 만들자”

〈롯데 회장〉

‘원롯데 통합 전략회의’ 주재

유럽서 초콜릿 생산시설 점검
한·일 롯데, 빼빼로 육성 협력
유통망 효율화 등 청사진 그려

“해외매출 1조 메가 브랜드 육성
강력한 실행력 발휘해 달라”

신동빈 롯데 회장이 한·일 롯데 식품 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빼빼로’를 매출 1조원 규모의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특히 신 회장은 ‘한국 상품’ ‘일본 상품’이 아닌 ‘롯데 상품’으로 전 세계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신 회장은 유럽 현지에서 한·일 롯데 식품사 핵심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롯데 통합 전략회의’를 주재했으며, 벨기에의 길리안과 폴란드의 롯데 베델(E. Wedel) 등 한·일 롯데가 인수한 회사의 초콜릿 생산 시설을 점검했다. 영국으로 건너간 신 회장은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사 토마스 헤더윅과 디자인 전략을 논의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한·일 롯데 식품사 경영진들과 유럽 출장을 통해 한·일 롯데 식품사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찾는데



신동빈 롯데 회장은 벨기에와 폴란드에 위치한 글로벌 식품 생산거점을 찾아 현장경영을 살피는 동시에 ‘원롯데 통합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은 신동빈 롯데회장(가운데)이 벨기에 신트니클라스 소재의 길리안 생산 공장을 점검하는 모습. /롯데지주

주력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영구 롯데 식품군 총괄 대표,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다마쓰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등 한국과 일본 롯데 지주사 및 식품사 경영진들이 출장에 동행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신 회장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원롯데 식품사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원롯데 식품사 전략회의는 한국과 일본 롯데 식품사 경

영진이 모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롯데의 첫 번째 협력 전략 상품인 ‘빼빼로’를 매출 1조원의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육성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한·일 롯데는 2035년까지 빼빼로를 ‘글로벌 톱10·아시아 넘버원’ 브랜드로 키운다는 목표 아래 양사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빼빼로의 매출 1조원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베트남·인

도 등 기존 진출 국가에서의 시장 확대, 잠재력 높은 신규 진출 국가 개척, 공동 소싱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을 검토했다.

빼빼로를 포함해 한·일 롯데의 대표 브랜드 상품을 메가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 해외 시장 공동 마케팅 ▲ 해외 유통망 효율화 ▲ 신제품 관련 양국 교차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청사진을 그렸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에서 한국 상품, 일본

상품이 아닌 ‘롯데 상품’이라는 브랜드 중심으로 고객과 소통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양사 대표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글로벌 유통망을 효율화할 계획이며, 신제품 출시에 앞서 한국과 일본에서 상호 협력해 테스트 베드 역할을 지원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신 회장은 “한·일 롯데가 긴밀하게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어달라”고 강조하며 “해외매출 1조원이 넘는 다양한 메가 브랜드 육성에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출장에 동행한 한·일 롯데 식품사 경영진은 벨기에의 길리안 공장 폴란드의 베델 공장을 번갈아 방문해 제조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생산 현장에서의 시너지 방안도 모색했다.

롯데웰푸드는 2008년 세계 3대 초콜릿 브랜드인 길리안을 인수했으며, 일본 롯데는 2010년 폴란드 제과회사인 베델을 인수했다.

회의에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일 롯데 베델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오픈한 ‘초콜릿 팩토리 뮤지엄’ 개관식에 참석했다. 초콜릿 팩토리 뮤지엄은 연면적 8738㎡(지하 1층, 지상 8층)로 체험관, 생산 설비, R&D 시설을 갖췄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손태승, 우리투자증권서도 ‘친인척 대출’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전액 상황… 절차상 문제여부 따져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이 우리투자증권(옛 우리종합금융)에서도 실행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관련 대출은 이미 상환됐지만 당시 대출 절차상 문제 여부 등은 당국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르면, 2018년 1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됐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금리는 연 6.5%였다.

해당 대출은 금감원이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이후 우리투자증권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대출은 2022년 2월 말 전액 상환된 상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1면 ‘흔들리는 100년 은행’서 계속

이에 따라 우리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낮아지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영업장인 김 모씨는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기 힘든상황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도 임 회장의 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새 지주 회장, 새 은행장 체제에서 1년이 넘게 지속됐는데 사건을 수습하는 방식에서 과거와 같은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신뢰를 갖고 바라보기보단 뭔가 오히려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80세 이상 어르신 242만명 충남·대구 인구 넘어섰다

지난달 국내 80세 이상 인구가 역대 최다인 240만 명에 달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4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최연장자 연령대의 전국 거주민 수는 충남과 대구 인구를 넘어섰다.

8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80세 이상 인구는 242만 명으로 나타났다. 80대가 209만 명, 90대가 31만 9000명, 100세 이상이 8737명이다.

행안부, 8월 말 기준 ‘역대 최다’
15년 전 85만명 보다 184% 늘어

전국 평균연령 45.2세까지 치솟아
전남 평균 48.9세, 세종은 39.0세

이들 그룹은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1006만 명)의 24%를 차지했다. 고령층의 1/4가량이 80세 이상의 최연장자 그룹인 셈이다. 80세 이상은 15년 전인 지난 2009년 8월 말(85만 명)에 비해 무려 184%(+157만 명) 늘어났다. 증가 폭이 같은 기간 65세 이상(93%·+486만 명)의 감절 수준이다.

80세 이상은 충남도를 넘어 대구시 인구까지 따라잡았다. 거주민 수에서 충남(213만)과 대구(236만)는 전국 80세 이상(242만)보다 각각 29만 명, 6만 명 적다. 이 최연장자 그룹은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경북(254만 명) 역시 수개월 내에 앞지를 전망이다. 8월 말 기준 경북 인구는 전월대비 2026명 줄었

다. 또 여성의 수가 압도적이다. 80대는 여자 132만·남자 77만, 90대는 여자 24만·남자 7만, 100세 이상은 7155명·남자 1582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연령은 45.2세까지 치솟았다. 이는 조선시대 임금들의 평균수명과 비슷하다. 국내 8개 주요 시·9개 도 가운데 전남이 48.9세로 가장 많았고 경북(48.5세)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강원(48.0세), 전북(47.8세), 부산(47.0세), 경남(46.4세), 충남(46.2세), 충북(46.2세), 대구(45.7세) 순으로 많았다. 서울(44.8세)과 경기(43.4세)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세종(39.0세) 평균연령은 17곳 중 유일하게 40세 미만이었다.

여성만 놓고 보면, 전남(50.7세)과 경북(50.2세)이 주민들 평균나이가 된 시대에 접어들었다. 세종 여성들(39.5세)도 마흔 살 진입을 앞두고 있다.

서울과 경기 여성은 각각 45.5세, 44.3세였다. 부산 여성은 48.3세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65세 이상의 절반 수준인 552만 명에 그쳤다. 총 인구의 10.8%밖에 안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펴낸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2050년대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68%에 이른다”고 예측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포항수협 송도활어회센터

포항수협에서 직접운영하는
동해안 자연산100% 활어회

포항수산업협동조합

포항시 남구 회망대로 1308(송도동)
TEL. 054)256-2770



김홍국 하림 회장이 '나폴레옹 황제의 전설적인 이각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S홈쇼핑

‘나폴레옹 정신’ 무장… 해운·HMR 등 사업영토 확장

〈간편식〉

김 홍 국 하림 회장

② 종합식품기업 도약

국내 최초 펠릿사료 제조·공급
400억대 대규모 전용 공장 건립
해외 펫푸드 시장 매출 확대 계획

김홍국 하림 회장은 나폴레옹의 팬으로 유명하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도전적 사고와 불굴의 용기는 김 회장이 추구하는 가치관이기도 하다.

김 회장에게 나폴레옹은 ‘1%의 가능성으로 100%를 해낸 인물’이다. 중학교 때 나폴레옹 위인전을 읽은 뒤부터 긍정의 힘을 믿고,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나폴레옹을 떠올렸다고.

김 회장은 2014년 경매에 나온 나폴레옹의 바이콘(이각 모자)을 26억원에 낙찰받아 하림그룹 자회사인 NS홈쇼핑 별관에 ‘나폴레옹 갤러리’를 마련하고 전시해왔다. 나폴레옹의 모자를 통해 젊은 세대와 기업인들이 기상과 영감을 얻기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리고 그의 도전 정신은 하림이 양계장에서 출발해 축산과 사료, 해운, 유통 판매, 식품 제조업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며 종합식품기업으로 거듭난 것처럼 하림의 사업 확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료 경쟁력 앞세워 ‘펫푸드’ 순항중

1978년 황등농장으로 양계 사업에 뛰어든 김 회장은 1986년 하림식품을 설립했다. 하림식품은 축산 분야 수직 계열화를 이뤄내면서 농가에서 생산된 육계 전량을 인수해 도계 가공처리 후 유통하는 역할을 했다.

2001년에는 인수합병 등으로 하림그룹 출범과 함께 사료 생산 회사인 제일사료를 계열사로 편입시키며 국내 첫 펠릿 사료를 제조하고 공급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NS홈쇼핑의 전신인 한국농수산방송을 인수하며 판매망 강화에도 나섰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선진과 한강씨엠, 축산물 사육 가공사업부문의 팜스코를 인수합병하며 사료 경쟁력을 확보했다.

하림은 2017년 하림펫푸드를 론칭하고 강아지와 고양이 사료 ‘더 리얼’과 ‘밥이보약’ ‘가장 맛있는 시간 30일’을 선보이며 펫푸드 시장에 진출했다.

수입산 사료에 밀려 국내 사료 회사들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던 시장 환경에서 하림펫푸드는 2021년 첫 흑자를 달성한데 이어 2022년 매출 366억원, 영업이익 19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각각 28%, 233%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45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사료와 닭고기를 생산·가공했던 노하우에 프리미엄 전략을 적용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하림펫푸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 원료(휴먼 그레이드)를 사용해 펫푸드를 제조한다. 하림펫푸드는 생고기 등 식품용 원료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실제 식품을 제조하는 수준으로 제조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400억원을 들여 전용 공장을 세우기도 했다.

펫푸드 사업에 진출한 식품업체 중 대규모 전용 공장을 가진 곳은 하림펫푸드가 유일하다.

향후에는 해외 펫푸드 시장에 도전해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과 베트남에 수출중이며,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 물류 신사업 진출

하림은 축산·식품 가공업, 사료 사업에 이어 해상 물류 역량을 강화하기에 나섰다. 2015년 6월 해상화물운송업체인 팬오션을 인수한 것이다.

팬오션 인수… 해상물류 역량 강화 HMR·어린이식품 등 사업 다각화 위기 직면할 때마다 나폴레옹 떠올려

하림 내 매출액이 가장 큰 곳은 팬오션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팬오션이 4조 3609억원으로 1위다.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2조2089억원, 영업이익 2334억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팬오션은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취급하는 곡

물을 다양화하고 고가의 곡물 판매를 늘렸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곡물 트레이딩 사업에서 물동량 85만t을 소화하며 매출 2805억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같은 기간(물동량 52만t, 매출 2308억원)보다 확대됐다.

팬오션에서 그동안 비주력사업으로 여겨졌던 탱커선과 컨테이너선부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더 미식·푸드버디 론칭

2021년 10월 하림은 ‘더 미식’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론칭하고 종합식품기업으로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했다. ‘천연재료만을 가지고 최고의 맛을 만들자’는 하림의 식품 철학을 바탕으로 HMR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인라면’을 필두로 2022년에는 ‘더 미식 즉석밥’과 유니자장면을, 지난해에는 만두 9종과 비빔면을 선보였다. 그리고 11월에는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식재료를 사용한 어린이식 브랜드 ‘푸드버디’를 론칭했다.

푸드버디는 아토피가 있던 김 회장의 자녀에게 영감을 얻어 만든 브랜드다.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하림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푸드버디 어린이라면은 출시 4개월만에 700만개가 판매됐으며, 즉석밥, 덮밥소스, 라면, 핫도그, 국물요리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김홍국 회장이 ‘The미식 장인라면’ 미디어 데이에서 라면을 끓여 참석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김홍국 회장이 지난해 11월 ‘푸드버디’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푸드버디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투톱 리더십 빛났다… IB-WM 시너지 폭발 ‘최대실적’ 달성

CEO 리서치

김 성 현·이 홍 구 KB증권 대표

KB증권이 김성현 대표(IB부문)와 이홍구 대표(WM부문) 체제로 개편한 뒤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순항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795억원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KB금융그룹 내 순이익 기여도도 3년 만에 10%를 넘긴 13.5%까지 올랐다. 두 대표가 자산관리(WM), 기업금융(IB)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는 평가다.

◆IB 짝 잡았다… DCM·ECM 등 정상 방어 위해 정진

김성현 대표이사는 KB투자증권의 전신인 한누리투자증권 시절부터 기업금융부문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도 IB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김 대표가 취임했던 2019년 4700억원대였던 IB부문 수익은 2022년 1조원대까지 성장했다. 올해도 KB증권의 IB부문 1분기 수탁수수료 수익은 전년보다 21.7% 증가한 1291억원을 기록했다.

김성현 대표, 기업금융 부문 성장 2019년 4700억서 2022년 1조대 DCM서 작년까지 13년 연속 1위

HD현대마린, IPO 성공적인 수행 SK쉴더스 인수금융 등 최정상 역량

KB증권은채권발행시장(DCM)부문에서 블룸버그 기준 2023년까지 13년 연속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절대 강자다. 올해도 신규고객 지속 발굴 및 RM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커버리지 본부를 개편하는 등 DCM부문 1위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

주식발행시장(ECM)부문에서도 2024년 기업공개(IPO) ‘최대어’인 HD

김 성 현 KB증권대표이사(IB부문)

1963년 8월 5일 출생
1982년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과 입학
1988년 대신증권 기업금융팀 팀장
2003년 한누리투자증권 기업금융팀 이사
2005년 한누리투자증권 기업금융팀 팀장
2006년 한누리투자증권 전무이사
2008년 KB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 전무·본부장
2015년 KB투자증권 IB총괄
2016년 부사장, IB부문 총괄
2019년 KB증권 대표이사



이 홍 구 KB증권대표이사(WM부문)

1965년 9월 20일 출생
1990년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2000년 현대증권 지점장
2011년 KB투자증권 HR팀장
2014년 양천·목동센터장
2015년 WM사업본부장
2017년 PB고객본부장, 상무
2019년 강남지역본부장
2020년 WM총괄본부장, 전무
2022년 WM영업총괄본부장·부사장
2024년 KB증권 대표이사



현대마린솔루션의 IPO 대표주관을 수행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유상증자에서도 업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6건의 IPO와 7건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시켰다. 올해 1월 우진엔텍의 IPO를 시작으로, 제일엠에스, 민테크에 이어 5월 ‘최대어’ HD현대마린솔루션의 국내 단독 대표주관을 수행했다.

KB증권에 따르면 하반기 또한 ‘빅딜’로 주목받는 케이뱅크의 연내 상장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와이제이링크, 탑런토탈솔루션 등이 최근 코스닥 상장본부로부터 예비심사를 승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ISTE를 포함해 13개 종목이 상장예비심사를 진행 중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올 하반기 MN C솔루션(방위산업부품 제조업) 및 발해인프라펀드 등의 상장을 통해 호실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2024년 ECM부문 1위를 재탈환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수금융 부문도 KB증권이 선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지난 2023년 국내 최대 규모였던 SK쉴더스의 인수금융을 대표주관하며 업계 최정상의 역량을 보여 줬다. 특히 인수금융 시장이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글로벌 대형 프라이빗 에쿼티(PE)인 EQT파트너스의 국내

최초 인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해외 인수금융에서의 성장세도 주목된다. 2023년 해외 인수금융은 4건, 약 8000억원 규모의 주선을 시현했다. 본격적으로 해외 인수금융 주선 업무를 시작한 2021년 대비 약 6.6배 성장한 수치다.

또한, 인수합병(M&A) 분야는 최근 4년간 전문가 조직 구성과 다양한 솔루션 제공을 통해 인수금융 주선 및 M&A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 왔다. 그 결과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연속 국내증권사 중 M&A자문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M&A 비즈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2030년까지 국내 증권업 내의 경쟁을 뛰어넘어 글로벌 IB 및 회계법인에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톱3에 등극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WM 성장으로 실적 견인…고객 맞춤형 관리 ‘총력’

지난해 말 KB증권의 WM 대표로 선임된 이홍구 대표는 WM 부문 증가세를 실현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이 대표가 맡은 WM부문의 올해 상반기 자산 규모는 5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51조원에 비해 급증했다. 6개월 만에 8조2000억원이 불어난 것이다.

이 대표는 현대증권 출신으로 PB

고객본부장, 강남지역본부장, WM총괄본부장 등을 거친 뒤 2020년부터 KB증권의 WM 부문 부사장을 맡았다.

이홍구 대표, 자산관리 부문 강화 올해 상반기 자산규모 59조2000억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위해 조직개편

‘KBM-able’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AI 활용한 ‘Stock AI’ 서비스도 도입

지난해 말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WM 중심 조직개편을 실시하기도 했다. KB증권은 WM 고객에 대한 고차원 투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솔루션 총괄본부’를 신설한 뒤 ▲WM 관련 고객 전략 ▲금융상품 ▲투자 서비스 조직을 통합 편제했다. 또한, 시장리스크부 내 고객자산리스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외 중장기 성장 전략과 연계한 주요 사업 추진 조직 신설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했다. 이때 M&A, 인수금융 Biz 관련 조직도 확대 개편됐다.

KB증권 관계자는 “조직개편을 계기로 고객 중심 WM자산관리 서비스 역량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증권사로서 선도적 포지션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KB증권의 WM부문은 ‘고객관리·맞춤솔루션·채널연계’를 통한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를 목표로 3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고객 가치 중심 WM 기반의 확대 ▲고객 수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최적의 투자 솔루션 제공 ▲채널 운영의 고도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금융솔루션 제공 등이다.

이에 걸맞게 기존 점포를 새롭게 꾸며 주요 금융센터 등 거점 점포를 대형화했으며, 지난 4월에는 신흥부촌인반포 원베일리에 프리미엄 자산관리센터인 ‘KB GOLD&WISE the FIRST 반포’를 오픈했다. 프리미엄 자산관리센터는 지난 2022년에 압구정에 처음 오픈됐다. 이를 바탕으로 반포에 2호점, 연말에는 도곡에 3호점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WM 성장세에 힘입어 초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채널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모습이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B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KB M-able(마블)’, 초보투자자와 MZ세대를 위한 간편투자 플랫폼 ‘M-able mini(마블미니)’, 지난해 출시된 ‘M-able 와이드’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M-able 와이드’는 웹 트레이딩 시스템(WTS)으로 맥북을 포함한 모든 PC, 태블릿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3월에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양방향 맞춤형 투자 정보 서비스인 ‘Stock AI’를 증권사 최초로 대고객 오픈하기도 했다. 마블미니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양방향으로 증권에 특화된 AI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KB증권이 최초다.

KB증권 측은 “지난해 월간 이용자 수 및 브랜드 파워에서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최상위 투자 플랫폼 지위를 올해도 수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고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투자 플랫폼 라인업을 통해 고객 유형별 맞춤형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상위권으로 재도전”… 작년 39개 의대 중도 탈락자 201명

종로학원, 대학알리미 분석 비수도권·수도권 각각 148·53명 2025년 의대 모집정원1500여명 ↑ “중도탈락 규모 내년 300명대 예상”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에서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201명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의대로, 수도권에서도 상위권 의대로 재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모집인원이 크게 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39개 의대 중도탈락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의

대에서 각각 148명(73.6%), 53명(26.4%)이 학교를 그만뒀다.

이는 전년인 2022년도(179명)보다 12.3%(22명) 증가한 수치다. 최근 연도별 중도탈락자는 ▲2019년 185명 ▲2020년 173명 ▲2021년 203명 ▲2022년 179명으로, 지난해 다시 200명대 이상 발생했다.

권역별로 의대 한 곳당 중도 탈락생을 살펴보면, 호남권이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권 6.8명 ▲부산·울산·경남권 5.2명 ▲서울권 4.6명 ▲충청권 4.6명순이다. 대구·경북은 2.6명으로 전국 권역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학교 당 평균

4.4명이 중도 탈락했고, 지방권 평균 중도탈락자는 5.5명이다.

학교별로 중도 탈락자가 가장 많은 대학은 충남대(16명)로 나타났다. 이어 ▲한양대 14명 ▲연세대(미래) 11명 ▲경상국립대 11명 ▲조선대 11명 ▲원광대 11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중도 탈락자가 없는 의대는 을지대가 전국에서 유일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 동국대(WISE), 건국대(글로벌)에서 각 1명이 중도 탈락했으며,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 영남대, 계명대, 인제대, 아주대, 가천대는 각 2명씩으로 학업을 관했다.

이는 비수도권 의대 학생이 다시 입시를 치러 수도권 의대로 진학한 것으

로 추정된다. 중도 탈락자는 자퇴뿐만 아니라 미등록·미복학·유급·학사경고 등도 포함하지만, 대부분 자퇴나 미등록에 해당한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증원으로 의대에서 의대로 재도전하는 양상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4581명으로, 전년(3092명)보다 1500명가량 확대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히 지방권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돼 중도탈락 인원이 대량 나타나는 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 규모는 전국적으로 300명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ihj@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의대 입시 관련 학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

동사식품



카누의 진한 맛과 향으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카누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KANU



李·文 “현재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 당 내부 분열 대응해야”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최근 文 가족 향한 검찰 수사 대해
“정치·법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탄압
가짜 뉴스로 내부 분열돼선 안 돼”
李,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8일 최근 검찰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리스트'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의 수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신임 지도부와 함께 경남 양산 평산 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약 40분 정도 대화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최근 문 전 대통령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부까지 진행했던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개혁 미완성에 대해 공감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흥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이 “가짜 뉴스로 인해 우리 내부가 흔들리거나 분열돼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대변인은 “최근에 있었던 가짜뉴스를 예를 들면 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문 전 대통령이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박 원내대표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이런 것들이 야권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당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 잘 대응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과 회동 이후 ‘평산책방’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있던 일부 시민들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해 물러가라는 1인 시위를 벌였고 다른 시민들은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에 들어서자 시민 및 가족들은 환호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 책방에서 민주당 신임 당직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증정식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 및 당 신임 지도부와 함께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 전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 대표를 응원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지지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묵념했다. 그중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뒤 방명록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 꼭 만들겠다”라고 적었다.

이후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생애가 기록된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관 전시관’ (노무현 전시관)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지지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지지자들과 소통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전시관’에서 차성수 전시관장과 함께 잠시 자리에 앉아 추석에 진행될 추석 특별전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그 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전시관에 나열된 김 전 대통령이 1982년 청주교도소에서 썼던 옥중 서신 등과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생전 읽었던 서지 등을 관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시관에서 포스트잇에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글을 적어 남기기도 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전 여사 예방을 마지막 일정으로 소화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와 권 전 여사의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현재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여사님도 걱정하고 있고, 당에서 지금처럼 중심을 잡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돌입

‘채 상병 특검·지역화폐법’ 등 與野 설전 전망

정치·안보·경제·교육 분야 순서로
총 11명 의원, 정부 부처수장에 질의

국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며 국정 전반에 주요 현안에 대해 송곳 질의에 나선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22대 국회가 개원 후 공방을 거듭하다 3개월만에 여야 합의 처리 법안을 통과 시킬만큼 여야 정쟁의 강도가 강해졌기 때

문에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 측과 야당 측은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총 11명의 의원이 한 명당 12분간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부처 수장에게 질의한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이외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던진다.

먼저 정치분야에선 ▲채 상병 특검안 추진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관련 수사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 ▲야당의 탄핵 공세 ▲정쟁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굵직한 현안을 여야 의원들이 준

비하고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 태세 확립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담긴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직접 보조금 지원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례법 추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명절 전 의료대란 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 여부 논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정부 측 대책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대응 방안 ▲저출생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오는 12일에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여야 대치로 정상적인 대정부질

문이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여야는 지난 7월에 열린 대정부질문 때도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추진으로 파행으로 얼룩진 바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을 통해 12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만나 여야 대표 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는 바람에 회동이 무산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與野, 의료대란 대책 논의 박차… 의료계 참여는 ‘미지수’

한동훈發 ‘여·야·의·정 협의체’
대통령실·민주당 ‘호응’… 금주 논의

한동훈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통령실과 야당이 호응하면서 해법 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자며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며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금주에 만나 의료대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협의체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현재 대학 입시요강이 확정돼서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1509명)도 백지화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측 담당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일단락됐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

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함께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측의 협의체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선 의료계가 빠진 여·야·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응급실 뺑뺑이’ 등 추석을 앞두고 응급 환자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먼저 나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총원되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를 향해 “2025년 정원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당장 9월 9일부터 수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늦었다”며 “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줘서 끝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의대 입시 관련 학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시

통령실에서도 ‘제로 베이스’부터 검토하겠다고 한 이상, 의료계가 빨리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하이닉스 르네상스의 원년을 만드는
ONE TEAM PLAY

SK하이닉스 4만여 구성원들은 힘을 합쳐
글로벌 No.1 AI 메모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지역 넘어 전국으로!’… 황병우 회장, 영업망 확장 가속화

DGB금융 회장 취임 6개월

iM뱅크, 시중은행 전환 마무리
성장동력 확보·내부 혁신 앞장

전국 영업망 확대로 경쟁력 강화
지역 금융권 퇴직자 대규모 채용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 추진

국내 최연소 금융지주 회장인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반년을 맞았다. DGB금융의 숙원 사업인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전국구 영업 확대’라는 목표에 주력하는 황 회장과 DGB금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평직원에서 회장이 되기까지

iM뱅크의 설립 연도인 1967년에 태어난 황 회장은 iM뱅크 평직원으로 시작해 DGB금융 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DGB금융의 ‘혁신’에 앞장서 왔다.

황 회장은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1995년 iM뱅크에 입행했다. 2005년부터 기업금융컨설팅을 담당하며 두각을 드러냈고, 2012년에는 단독 부서로 승격된 경영컨설팅센터의 센터장을 맡아 300개 이상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DGB금융

의 지역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이끌며 ‘지역 경제 전문가’로 성장했다.

센터장 재임 당시 황 회장은 ▲경영 컨설팅을 통한 지역기업의 질적 성장 ▲기업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은행과 지역기업의 동반성장 ▲기업고객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전략을 통해 지역에서 DGB금융의 기반을 탄탄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전략은 당시 타 지방은행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전임인 김태오 전 회장

의 취임과 함께 DGB금융지주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DGB금융지주로 소속을 옮겼고, 2021년에는 그룹 미래기획총괄로 취임해 DGB금융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이끌었다.

벤처캐피탈사인 하이투자파트너스, 핀테크사인 뉴지스탁 등 주요 계열사가 인수합병(M&A)을 통해 DGB금융에 합류한 것 또한 이 시기다. 특히 뉴지스탁 인수는 국내 금융지주사가 핀테크 기업을 성공적으로 직접 인수한 최초 사례다.

2022년 지속가능경영총괄 취임 이후에는 내부 혁신에도 힘썼다. 역할과 역량 중심의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신인사제도’를 도입해 일반직원의 직급(1~7급)을 폐지했고, 부서장을 제외한 직원의 호칭을 단일화했다.

작년에는 시중은행 전환 추진으로 전환기를 맞이한 iM뱅크의 은행장으로 취임했고, 시중은행 전환을 기획 및 진두지휘하며 전환을 성사시켰다. 이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첫 사례다. 새 시중은행이 탄생한 것은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이다.

DGB금융 내에서 다방면의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황 회장은 지난 3월 DGB금융의 차기 회장으로 낙점됐다. 은행

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만이다.

◆황병우의 DGB…당면 과제는 ‘전국 영업망 확대’

황 회장과 DGB금융의 최우선 과제는 주요 계열사인 iM뱅크의 ‘전국구 영업 확장’이다. 지난 6월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전국단위 영업이 가능해진 만큼 향후 DGB금융의 성장 동력이 될 iM뱅크의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앞서 황 회장은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당시 전략으로 ‘뉴하이브리드 뱅크’를 제시했다. 개인금융 부문에서는 비대면 금융에 집중해 금리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고,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전문성 높은 기업금융전문가를 통해 방문형·맞춤형 상품을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iM뱅크는 지난 7월 강원 원주에 첫 ‘거점 점포’를 출점했다. 거점 점포는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 인력을 별도 채용 및 배치해 기존 시중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특화 점포다. iM뱅크는 연말까지 수도권에 2개 거점 점포를 추가 출점할 예정이다.

iM뱅크가 올해 두 차례 진행한 전문인력 채용에서도 영업망 확대 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

앞서 iM뱅크는 지난 2월 수도권·충청 지역 금융권 퇴직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다. 직무는 기업금융·영업, 기업 여신심사 등으로, iM뱅크의 1인 지점장 제도의인 ‘기업금융전문가(PRM) 확대’를 위한 채용이다.

이어 지난 8월에도 디지털 부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직무는 UX·UI(사용자 경험·사용자 공간), 애플리케이션 개선, 간편결제 개발·운영, 제휴 콘텐츠 기획 등으로, 모바일·디지털 역량 강화를 채용 목표로 했다.

DGB금융은 iM뱅크의 영업망 확대 이후 그룹 자회사 간의 시너지 강화에 힘을 전방이다. DGB금융은 그룹 내에 iM뱅크와 하이투자증권뿐만 아니라 iM증권, iM라이프, iM에셋자산운용 등 다양한 금융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다.

황 회장은 지난 3월 취임사에서 “계열사들의 전국 업권이 같아지고 나면 그룹 시너지를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고객과 상품, 채널 각 영역에서 그룹의 역량이 함께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상담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보험사, AI 활용 디지털 전환 빨라진다

교보라이프플래닛

생성형 AI 기반 상담 세일즈 플랫폼

iM라이프

AI 기술로 변액보험 펀드 운용 강화

KB손해보험

AI 맞춤형 보험 서비스 개발 추진

보험업계의 인공지능(AI) 활용도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보험 상품 및 고객 서비스 등에서 AI를 활용하면서 다방면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 플래닛은 ‘생성형 AI 기반 채팅상담 세일즈플랫폼’을 구축한다. 최근 화두인 AI 기술을 적용해 고객 상담 고도화 프



챗GPT가 생성한 보험업계 인공지능(AI) 활용 이미지.

로젝트에 나섰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옴니채널 세일즈플랫폼’을 구축해 고객이 채팅이나 전화 등 다양한 옴니채널을 이용해 최적화된 보험을 혼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 일환으로 전문상

담사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채팅 상담 세일즈플랫폼을 개발한다.

AI 상담 어시스턴트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고 검토해 전문상담사 업무를 지원한다. 전문상담사는 과거보다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해 다양한 고객 문의에

도 일관된 양질의 답변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 업무 효율과 전문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iM라이프는 변액보험 운용에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AI를 도입했다. 지난 8일 기존 ‘마이솔루션AI변액연금’의 ‘글로벌AI플랫폼액티브형’ 펀드에서 AI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AI글로벌다이나믹’ 펀드를 새롭게 편입한 ‘마이솔루션AI변액연금S’를 선보였다.

AI글로벌다이나믹펀드는 기존 펀드보다 잠재 리스크의 변동성 관리를 위한 투자자산 트렌드 분석 AI를 강화했다.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목표 달성 확률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당 변액보험은 DGB금융지주의 시중금융그룹 전환 이후 선보인 첫

상품이다. iM라이프는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을 적용한 변액보험 상품에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KB손해보험은 AI 기반 보험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지난 20일 모아데이터와 함께 AI 기반 보험 서비스 연구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아데이터는 AI를 활용한 위험 탐지·예측 플랫폼 운영 기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 산업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보험금 부당 청구 탐지 및 사기 적발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및 보장 제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데이터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뎌 보상 못받아

💡금감원 Q&A

Q. 운전자보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나요?

A. 첫 번째로는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를 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단,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

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 혹은 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

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보상되니 합의 전에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서 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금 청구 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달 둘째 주 전국 11곳서 5353가구 공급

🏠분양 캘린더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5353가구(일반분양 309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양우내안페르스티지’, 경기 이천시 증일동 ‘힐스테이트이천역’, 제주도 제주시 오라이동 ‘위파크제주’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차주는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가 전무하다.

양우건설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일원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연신내양우내안페르스티지’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

상 22층, 2개동, 전용면적 53~74㎡, 총 260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239가구와 공공임대 21가주로 조성된다. 지하철 6호선 구산역이 도보 3분거리인 초역세권 단지이며, 3·6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도 가깝다.

호반건설은 제주도 제주시 오라이동 일원에서 ‘위파크제주’를 분양한다. 총 2개 단지로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15개동, 전용면적 84~197㎡, 686가구 중 61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13개동, 전용면적 84~197㎡, 715가구 중 643가구가 청약일정에 돌입한다. /전지원기자 jjw13@

현대차그룹, 전기차 실용성·안전성 강화… 글로벌 공략 고배

소형 모델 등 브랜드 경쟁력 제고
현대차 캐스터 EV 'PMSA' 탑재
기아 IAA서 'PBV' 라인업 공개

현대자동차·기아가 전기차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고배를 진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자체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함께 가격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며 브랜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소형 전기차(EV) 라인업을 앞세워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특히 소형 모델이지만 현대차그룹의 최신 기술 적용과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에도 집중한다. 벤츠를 비롯한 수입 브랜드들이 '안방'인 유럽에서도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자국 정부의 전동화 정책에 따라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고 있지만 수요가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아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우선 현대차는 현대차그룹 최초로 적용된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PMSA)'를 탑재한 캐스터 EV로 유럽 등을 공략한다. PMSA는 정차 또는 정차



캐스터 EV



/현대차 EV3

/기아

후 출발하는 저속 주행 상태에서 전후방 1m 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작동한다. 이 기술은 오는 2025년 UN 산하 유럽 경제 위원회(UNECE) 주관으로 정차 중 페달 오조작에 대한 안전법규로 제정할 계획으로, 현대차그룹은 유럽 공략을 위해 해당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기아는 소형 전기 SUV EV3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사전 계약에 돌입했다. 높은 성능에 합리적 가격으로 국내서 흥행몰이 중인 EV3가 유럽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EV3의 유럽 판매 가격은 5000만원 이상으로 국내보다 800만~1300만원 높게 책정됐다.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와 일부 세부

사양이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기아가 앞서 출시한 EV9의 유럽 출시 가격이 2200만원 가량 높다는 점에서 EV3는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아는 현재 유럽에서 EV3와 비슷한 크기의 니로 EV를 판매 중이지만, EV3 출시로 판매 라인업을 확대, 전기차 판매량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기아 EV3는 보급형 전기차 출시 경쟁이 치열한 북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간 기아 EV3의 예약 실적이 예약 돌입 3주 남짓 만에 1만대를 돌파했다. 실제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사전 판매량이 4002대를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다.

기아는 유럽 전기 경량용차 시장 공략에도 집중한다. 전기차 주요 시장인

유럽에서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 분야에서도 전동화 리더십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기아는 9월 17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4'(IAA 2024)에서 PBV 라인업을 선보인다. 내년 양산 예정인 첫 번째 PBV 'PV5'를 비롯해 대형 PBV인 PV7 콘셉트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기차 시장은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대차, 기아가 전동화 기술에 속도를 높이는 만큼 향후 시장에서 점유율과 기술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LG

납품대금 9500억 조기 지급

명절 앞두고 협력사·지역사회 상생

LG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온누리상품권 구매, 생필품 나눔 등을 통한 상생 활동에도 나선다.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D&O 등 LG그룹 8개 계열사는 총 9500억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 대금을 예정일보다 최대 14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LG는 또한 15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도 구매해 전동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구매한 상품권은 국내 직원들에게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 생필품도 전달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어스온

'케타푸 광구' 운영권 확보

SK이노베이션 에너지 자원개발 회사인 SK어스온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州) 해상에 있는 '케타푸 광구(Ketapu Cluster)'의 운영권을 확보했다.

SK어스온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케타푸 광구를 낙찰받은 뒤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나스(Petronas)와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생산물분배계약은 아시아 주요 산유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광권 계약 형태로 계약자가 탐사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원유 및 가스 생산 시 현지 정부와 계약자가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생산물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SK어스온이 케타푸 광구 운영권과 지분 85% 갖고, 나머지 지분 15%는 PSEP(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소유 석유개발회사)가 보유하게 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IFA 전시관 '구름인파'

삼성전자는 오는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주제로 참가해,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통해 진화한 연결 경험을 유럽 시장에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메세 베를린 전시장에 위치한 '시티 큐브 베를린'에 업계 최대 규모인 6017㎡(약 1820평)의 공간을 마련하고,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영상디스플레이·생활가전·모바일 등 최신 AI 제품을 대거 전시했다. /삼성전자

최태원 "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사업 경쟁력 키워야"

(SK그룹 회장)

SK 글로벌 경영환경 점검회의
최창원 등 그룹 주요 경영진 참석
"축을 높이 세우고 기민하게 대응"

"글로벌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솔루션 등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국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축을 높이 세우고 기민하게 대응하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경영환경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SK그룹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최태원 회장과 주요 계열사 CEO 등 그룹 경영진이 한 데 모여 글로벌 경영환경 점검 회의를 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날 회의에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유정준 부회장(SK Americas 대표), 서진우 부회장(SK 중국대외협력총괄), 장웅호 SK(주) 사장,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광노정 SK하이닉

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11월 미국 대선과 9월 일본 총리 선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외 지정화 리스크 및 중국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글로벌 사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사업 및 시장 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AI와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야 하는 우리의 과제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SK가 영위하는 AI, 반도체, 에너지솔루션 사업 모두 국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

는 만큼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사업 경쟁력 제고와 사업 생태계 확장에 더 힘쓰자"라고 당부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중요하고 시의성이 있는 의제가 있으면 종종 주말회의를 열어 경영진과 의견을 나누고 대응책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들어 국내외에서 한국 재계를 대표해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미국 등에서 글로벌 빅테크 CEO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등 AI·반도체 관련 광폭 경영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성SDI, 'RE+ 2024' 참가

삼성SDI가 LFP 배터리 등 다양한 ESS용 배터리로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삼성SDI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나흘간 미국 애너하임(Anaheim)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에너지 전시회인 'RE+(Renewable Energy Plus) 2024'에 참가한다.

삼성SDI는 'A Sustainable Future Driven by PRiMX(프라이맥스로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전력용 'SBB(Samsung Battery Box) 1.5', UPS(무정전 전원장치)용 고출력 배터리, LFP 배터리 등 다양한 ESS용 배터리 라인업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SDI는 이달 미국 출시 예정인 차세대 전력용 ESS 배터리 'SBB 1.5'를 전면에 내세운다.

/차현정 기자

“구형 가전도 AI로 똑똑해진다” ‘씽큐 온’ 맞춤형 스마트홈 구현

IFA 2024

LG 류재철 사장, 독일서 간담회
B2B·구독 서비스 등 확장 계획
집사로봇 ‘이동형 AI홈 허브’ 선보
“씽큐 온 중심 AI홈 연내 경험할 것”

“구형 가전도 인공지능(AI) 가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재철 LG전자 H&A 사업본부장 사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24 기자간담회’에서 LG전자가 추구하는 AI 홈 솔루션의 비전을 이같이 밝혔다. AI 홈 솔루션 서비스의 탑재 범위를 구형 가전을 가진 가정으로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류 사장은 “AI 기능이 없는 구형 가전에서도 LG 씽큐 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다만 연결은 되어야 하는 만큼 기존 와이파이 가 탑재된 가전이나 리모컨으로 동작하는 가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날 업계 최초로 생성형 AI를 적용한 AI홈의 핵심 허브 ‘LG 씽큐 온’을 중심으로 구현한 AI홈의 모습을 선보였다.

씽큐 온은 집안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연결해 주는 AI홈의 두뇌 역할을 한다. 고객이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고 AI가 대화 맥락을 이해해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8시 쯤 운동을 하는 고객이라면, 운동 일정이 끝날 때 세탁기 코스를 ‘기능성 의류’로 바꿔 준다.

류 사장은 “경쟁사가 가전 제품의 연결을 강조해왔다면, LG전자는 연결 후에 고객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IFA 2024’ LG전자 부스에서 AI홈 허브인 ‘LG 씽큐 온’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낼 수 있는 지에 집중했다. ‘더워’라는 말을 듣고 AI가 단순히 에어컨을 트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온도를 맞추는 것과 같은 부분까지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씽큐 온을 구독·B2B 등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정기현 플랫폼사업센터장은 “씽큐 온 역시 구독 사업 중 하나로서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신축 아파트 등의 기업간 거래(B2B)도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LG전자는 IFA 2024에서 선보인 AI 집사로봇 ‘이동형 AI홈 허브(코드명 Q9)’이 여러 기능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향은 LG전자 H&A CX담당 상무는 “오는 10월 덴마크에서 열릴 개발자 콘퍼런스 ‘로스코’를 통해 전세계 개발자들과 이동형 AI홈 허브의 새로운 기능을 함께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픈 플랫폼

인 만큼 생태계를 구성해 또다른 기능 탑재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LG전자는 지난 7월 인수한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엡홈’의 개방형 생태계와 연결성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된 연결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AI홈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LG전자는 보안성을 강화한 ‘LG윌드’를 적용해 AI홈 보호에 나선다.

류 사장은 “AI가 가전을 제어하고, 고객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AI홈 시대를 열겠다”며 “생성형 AI를 적용한 AI홈의 핵심 허브 ‘LG 씽큐 온’을 중심으로 AI홈을 연내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가전 업계 화두로 떠오른 로봇청소기에 대해 류 사장은 “그간 일체형 로봇청소기의 단점으로 꼽히는 악취와 위생 관리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면서 “현재 판매 상황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포스코인터 “가상 오피스서 인턴 체험”

‘버추얼 메타버스 익스텐션’ 실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메타버스 익스텐션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종합사업회사(상사) 최초로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를 활용한 인턴십인 ‘버추얼 메타버스 익스텐션’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8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익스텐션 프로그램은 회사 내에서 4주 이상 직무 체험을 하는 기존 인턴십과 다르게, 회사가 아닌 메타버스 상에서 근무하며 직무 경험을 쌓는 게 특징이다.

이번 익스텐션은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구직자나 방학 중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호응을 얻어 기존 인턴십보다 2배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고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설명했다.

익스텐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영업 및 사업개발 직무 프로세스를 집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사업실별로 선정된 9명의 우수 사내 멘토를 매칭해 커리어 과제를 부여하고 주 2~3회 메타버스 미팅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했다. 익스텐션 우수 수료자는 신입 공채 지원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이 주



포스코인터내셔널 익스텐션 참가자들에게 사내멘토들이 메타버스 미팅을 통해 커리어과제 피드백을 하고 있다.

어진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처음 시도한 버추얼 메타버스 익스텐션이 사회 첫 발을 내딛기 전의 미래의 인재들에게 직무 경험은 물론 당사 조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가길 바라며, 이번에 만난 우수 인재들이 회사와 또 연이 닿아 사내 구성원으로 만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향후에도 유연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구직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T, 청소년 마약·딥페이크 막는다

RCS 메시지로 범죄 예방

SK텔레콤과 경찰청은 RCS 메시징 기반 공익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 및 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나선다고 8일 밝혔다.

RCS는 국제 표준 메시지 규격 중 하나이자 기존 문자(SMS·MMS) 서비스에서 발전한 차세대 메시지로, 보다 많은 글자 수 또는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다.

SKT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청소년 마약 범죄 및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제작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RC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일부터 발송 중인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방안 및 대처법’ 메시지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범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마약 예방을 위한 주요 관



SK텔레콤과 경찰청은 RCS 메시징 기반 공익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 및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고 8일 밝혔다.

/SKT

찰사항 및 대처방법 등 실생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방안을 상세히 담았다.

/구남영 기자

“온·오프로드 아우르며 안정성·성능 잡다”

첫 전기 SUV ‘어벤저’ 공식 출시
1회 충전으로 400km 주행 가능
커넥티드 서비스에 CATL 장착

“지프의 브랜드 전략은 월리스부터 시작된 오리지널 프리덤 머신에서 가졌던 가치를 보호하면서 전체적인 고객층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

한국에 공식 출시한 어벤저로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전기차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더 많은 고객층에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알리겠다는 의미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원조 지프는 지난 4일 ‘Jeep Avenger Design & Tech Day’를 열고, 한국 기자들에게 어벤저 기획자들의 개발 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벤저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프로드 뿐만 아니라 온로드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컴팩트한 차체는 회전반경이 10.5m로 좁은 공간에서도 여유롭게 움직일



9월4일 공식 출시한 어벤저 트렁크 공간 활용 모습. /지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행거리는 1회 충전으로 400km를 이동할 수 있다. 도심에서는 550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100kW 고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20%에서 80% 충전까지 24분이면 충분하다.

어벤저에는 CATL사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지프는 배터리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400만km를 달리며 영하 3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잘 견딜 수 있는지 실험했고, 1열과 2열 뒷부분 아래에 위

치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쉴드를 장착했다.

현재 커넥티드 서비스를 통해 차주가 스마트폰으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히터를 미리 켜둘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해 알림을 주는 BMS 기능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지프 어벤저는 편의 및 안전 사양에 따라 론치패드 트림 5290만원, 알티튜드 트림 5640만원에 판매 중이다.

지프 다니엘레 칼로나치 디자인 헤드는 “디자인할 때 쿨하되 기술적이어야 하고, 패서너블하되 컴팩트해야 하며, 동시에 젊음과 재미 요소를 갖추도록 디자인해야 했다”고 말했다.

어벤저는 1회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공기역학을 개선하기 위한 외형 디자인에도 공들였다. S라인 곡선 디자인, 휠 하우스 U자 설계 및 기어비를 개선함으로써 약 8%의 추가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카카오모빌, 로봇 기반 서비스 공동개발

호반건설·베어로보틱스와 MOU

카카오모빌리티는 호반건설, 베어로보틱스와 손잡고 ‘실내로봇 서비스 운영환경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로봇 배송 서비스 운영 환경을 표준화하고, 각 공간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사무실·호텔·아파트·상가 등 다양

한 공간마다 로봇 배송 운영 규격을 개발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로봇 배송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호반건설이 보유한 다양한 공간에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베어로보틱스는 로봇 하드웨어와 주행 설루션 기술을 고도화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 설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해민 기자 hyem@

NARA CELLAR

秋夕

추석에도 나라셀라와 함께 준비하세요!

나라셀라 추석 선물세트



국민 천사 와인
'몬테스'

국내 최초 누적판매 1600만병을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천사 와인
'몬테스'



WS 94
JS 97

몬테스 알파 엠



JS 96

몬테스 폴리



WS 93
JS 98

몬테스 퍼플 앤젤

몬테스의 품질과
아르헨티나의 독창성
'카이켄'

칠레 와인의 마에스트로이자 스타 와인메이커
'아우렐리오 몬테스'가 안데스 산맥의 반대편인
아르헨티나에서 만든 와인 '카이켄'



JS 93

카이켄 울트라
카버네 소비뇽



WS 88
JS 92

카이켄 울트라
말벡



WS 90
JS 91

카이켄 울트라
샤도네이

❁ 판매처 ❁

WINE PICK S

송파점 02-401-3766	동탄점 031-898-6635
을지로점 02-6031-0020	분당정자점 031-712-8585
여의도점 02-3775-1875	이케아광명점 02-899-4777
성수점 02-3409-5633	광주봉선점 062-674-0985
청담점 02-514-5500	센텀점 051-747-4272
암구정현대점 02-547-8333	

Naracellar Reserve

나라셀라리저브 | 02-548-3720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금투세 보완 후 시행되나… 공개토론회 예고에 ‘관심 집중’

민주당, 오는 24일 찬반 토론회
이재명, ‘보완 후 시행’ 입장 선회
6개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 등 준비
개인 투자자, 민주당에 비판 목소리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 및 보완 여부를 앞두고 당내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를 놓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정치권과 증권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의 유예 및 완화 문제와 관련해 찬반 입장을 가진 국회의원 2~3명씩 팀을 나눠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현재 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워낙 큰 상황이라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토론회 결과에 따라 금투세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형식상 토론일 뿐 사실상 ‘보완 후 시행’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후보 당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최근 보완 후 시행 방안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내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기재위·정무위에서도 다수의 의원이 금투세를



한국주식투자자연합을 비롯한 12개 투자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광현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위원장은 총 6개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현행 연 5000만원인 금투세 기본공제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원천징수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당론이 아닌 개인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금투세를 보완 후 시행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유사한 만큼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금투세를 보완해 시행하는 방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의지를 보이는 민주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국내 주식의 경우, 부자 감세 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금투세를 강행하면서도 ISA 계좌로 해외주식을 사면 아무리 많은 이익

을 내도 비과세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 임의권 법안은 금투세를 강행하기 위한 위험한 꼼수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귀를 막고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이른바 사모펀드 특혜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 이후 총 640조원 규모 사모펀드 중 주식 사모펀드를 제외한 619조원의 사모펀드 가입자가 해당 펀드의 수익분배를 받지 않고 환매 후 청산하면 기존 세율 49.5%가 27.5%로 된다. 개인투자자의 끊임없는 사모펀드 특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사모펀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킬레스건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세율이 49.5%에서 27.5%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49.5%의 세율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금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 운용자산에 따라 세부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왕현정 KB증권 TAX솔루션부장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 중에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유리해지는 투자자도 있지만 불리해지는 투자자도 있다”며 “투자 유형이나 비율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에 국내 주식이 포함돼 있으면, 현재 비과세 상태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반면 해외주식, 채권, 부동산, 과생상품 등에 투자한 경우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세 10%까지 감안하면 대략 50%까지 육박하는데 금투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 세율이 27.5%로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고 예정된 대로 내년에 시행된다면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은 세법의 복잡성과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왕현정 부장은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고, 금투세 도입 시 세금 절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텍스 플랫폼 등으로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해 가장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감원, 금융업계 ‘5대 경제대국’ 인도 진출 지원사격

‘금융회사 인도 진출 설명회’ 진행
인도 금융 인허가 제도·전망 등 소개
시장 잠재력·높은 경제성장률에 ‘관심’

‘세계 최대 인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5대 경제 대국으로 거듭난 인도 시장에 대한 국내 금융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업계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금융회사 인도 진출 설명회’를 통해, 인도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한 인도대사관·금융협회와 함께 ‘금융회사 인도 진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도 재무부, 중앙은행이 참석해 인도의 금융 인허가 제도와 투자 환경 전망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인도 진출에 관심이 많은 국내



금융감독원은 주한 인도대사관과 ‘금융회사 인도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관 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금융감독원

금융사와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설명회에는 국내 50여개 금융회사에서 140여명이 참석해 인도 진출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에 대한 금융업계의 관심은 인도 시장의 잠재력과 높은 경제성장에서 비

롯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가 2~3년 내에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일본과 독일을 제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인도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인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8.2%로 주요 경제 국가 중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는 12개 국내 금융사가 25개 현지 점포를 인도에서 운영 중이다. 금감원 측은 “이달 기준으로 다수의 국내 금융사가 11건의 신규 또는 추가 인도 진출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현지에서 가장 많은 지점(6개)을 운영 중이다.

이날 인도 금융당국은 인도의 금융제도와 현황을 발표했다. 인도 재무부는 인도 금융산업 현황과 인허가 제도 전반을, 인도 중앙은행은 은행 인허가 승인 절차와 감독체계를 소개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 관련 세부 등록 절차 및 규제를 안내했다. 특히 인도 국립투자인프

라펀드(NIIF)의 라지브 다르 CIO는 “국가 정책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인도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피력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국내 금융사들은 그간 정보 취득에 제약이 있던 인도 금융산업·규제를 문의하고, 인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질문으로는 ▲금융업 진출 요건 ▲세금 문제 ▲인도 금융시장 및 기업실적의 신뢰성 있는 정보 수집 방법 등이 나왔다. 금감원은 인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국내 금융사의 성공적인 인도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인도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이 한국의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와 결합된다면 양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시너지를 통해 실물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금융시장의 균형 있고 견고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낮아… “매수 포지션 우세”

BOJ 금리인상 전망에 국제 입찰 개선
美·日 선거에 통화정책 불확실성 상존

당분간 지난 8월 ‘블랙먼데이’에 불과했던 것과 같이 대규모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날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강효주 KB증권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지난달에는 엔 캐리 이슈 발생 직전에는 5개월 연속 10만 계약이 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엔화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이 형성돼 있었고, 심지어 7월 말에는 그 규모가 15만 계약을 상회하는 정도였다”며 “8월을 거치면서 숏(매도) 포지션이 일정부분 해소되면서 현재는 롱(매수) 포지션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전망에 부진했던 일본 장기채 입찰도 개선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지난 5

일 진행됐던 30년물 일본 국채 입찰에서 입찰금리는 직전의 2.23%에서 2.043%로 낮아졌고, 3일 진행된 10년물 입찰도 2개월 연속 0.9%대를 유지하면서 7월 주요 부진 우려가 확대되던 당시보다 낮아졌다”며 “BOJ의 추가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엔화의 가파른 강세 전환 가능성은 8월 대비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일본 증시는 이달 첫째주 미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 엔비디아 반등점 위반

소환장 발부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2일 닛케이 225지수는 전 장보다 5.8% 떨어지며 아시아 증시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그는 “우에다 BOJ 총재가 경제·물가 전망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엔·달러 환율까지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며 “6일 12시 기준 엔·달러 환율은 143엔대까지 하락하면서 가파른 엔고 전환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재차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증시 펀더멘털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엔화 수준에 근접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강 연구원은 “수출 기업들의 하반기 상정 환율인 142.56엔보다도 절상될 경우, 수출 기업 위주로 일본 증시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특히 9월에는 미국 금리 인하 뿐 아니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로 인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환 민감도가 낮은 섹터로 선택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항만은 수출 최일선, 자부심 커… 안전경영 전사적 노력”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한승항만물류산업 박진기 대표

40피트(ft) 컨테이너 한개 무게만 약 20톤(t)이다. 항만에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들이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오간다.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내리는 크레인 은 아파트 20~30층 높이와 맞먹는다. 곳곳이 위험요소다.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긴장할 수 밖에 없다.

한승항만물류산업을 이끌고 있는 박진기 대표도 그중 한 명이다.

“항만 터미널에선 안전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침에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기를 바라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늘 하루를 시작한다. 항만은 수출의 최일선에 있다. 경제의 시작이자 종착지가 바로 항만이다. 매일 매일이 살얼음판이지만 이곳을 지키며 일하고 있다는 자책이 자부심이다.”

한승항만물류는 2022년 2월에 컨테이너 운송 관리, 컨테이너 터미널 장비·운영 및 도급업무에 대해 ‘국제공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서



박진기 한승항만물류산업 대표가 부산 신항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컨테이너 운송관리 등 IOS 인증
매일 새벽 5시20분에 일과 시작

2003년 태풍 매미에 ‘사업 위기’
‘자동화 탈바꿈’ 전화위복 계기로
2년연속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를 받았다.

이는 늘 위험에 노출돼 있는 회사가 그만큼 안전경영에 집중하고, 국제 규정에 맞는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해 선진화한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전 사업장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증서는 관련업계, 특히 중소기업에선

받기 쉽지 않은 ‘증표’다. 그만큼 전사적으로 ‘안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 대표는 매일 새벽 5시20분 전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전날 과음을 했어도 이 시간은 반드시 지킨다.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항만 업무의 특성상 밤새 있었던 특이사항과 당일 진행할 업무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바로 이때다. 현장으로부터 보고받고 대표가 응답해주는 것이 바로 안전의 시작인 셈이다.

박 대표는 2002년 한승항만물류 전신인 한승Y/T육운을 설립했다.

직전까지 다니던 물류회사가 IMF를 겪으면서 핵심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아웃소싱하기 시작, 아예 관련 분야에서 창업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첫 사업 아이템은 컨테이너터미널 장비운영 도급이었다. 그후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컨테이너), 항만장비 정비, 시설관리, 냉동컨테이너 운영, 컨테이너 하역 장비 및 팔레트 상·하차 장비 임대, 코일 상·하차, 건물위생·시설관리와 같은 종합용역관리 등 항만분야 사업을 점점 다각화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 태풍으로 위기를 겪었다. 진짜 태풍이었다. 2003년 당시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항만에 있는 크레인들이 모두 쓰러진 것이다.

복병을 만났던 박 대표는 자동화로 탈바꿈해가고 있는 시류에 편승, 새로운 기회를 잡으며 위기를 넘겼다.

정신없이 달리다보니 한승항만물류는 인원 기준으로 동종업계 10여개 회사들과 비교해 수위를 차지하는 규모까지 성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으로서 국내 최초로 항만장비 운영부터 컨테이너터미널 총괄 위탁 운영이 가능한 대표적인 회사로 손꼽힐 정도로 명성도 얻었다.

박 대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신항 6부두는 자동화율이 현재 88%까지 도달했다. 항만 운영은 빠른 처리

속도와 안전사고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에 관해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한승항만물류는 현재 부산(BCT) 뿐만 아니라 울산(UNCT), 인천(CNCT)에서도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물류와 신항물류센터 확보, 3PL(3자 물류) 진출, 하역업 진출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5일엔 회사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돼 대표이사 자격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회사가 두번째로 일자리 으뜸기업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례적인 동시에 영광스러운 일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가는 직원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 있는 사람들의 업무강도가 올라가고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비용과 직결되지만 인력을 여유롭게 운영하면 구성원들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고 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좋은 기업(Excellent Company)’을 경영 목표로 달리고 있는 박 대표와 한승항만물류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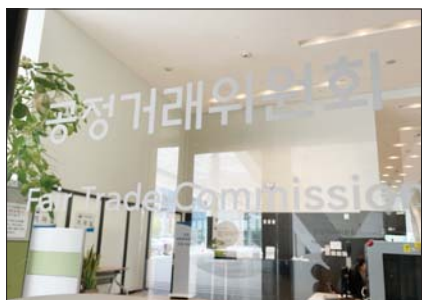
공정위, 손해책임 전가 등 캐피탈사 불공정약관 7개 시정

공정위, 대출업무 약관 심사 이의제기 금지 등 관행 제동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사고시 대출모집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캐피탈 등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A사는 ‘소유권이 이전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토록 하고 있고, 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는 ‘모집인의 부당행위로 구매자가 대출금 상환을 거부한 경우 모집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라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사고가 지속 발생하자, 2021년 7월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피탈사가 대출금을 고객의 계좌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캐피탈사의 위탁계약서에서는 모집인이 대출금을 수령하지 않음에도 대출사고 발생 시 종전과 동일하게 대부분 책임을 모집인이

지도록 하고 있다”며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캐피탈사들은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역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번에 삭제했다.

이외에도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등이 삭제 또는 수정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코웨이 코디 위한 ‘비상벨’ 운영

코웨이가 코디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8일 코웨이에 따르면 비상벨 시스템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방문판매 및 점검 서비스 특성상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코디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 신고 시스템이다.

비상벨 시스템은 코디가 업무용 앱 내에서 비상벨 버튼을 클릭하면 코디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담긴 문자창이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해당 문자 발송 시 경찰에 즉시 신고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김승호 기자



동화기업 가구 마감재 ‘디하임’ 출시

동화기업이 가구 마감재 및 도어재 ‘디하임’ (사진)을 출시했다. 디하임은 회사가 자체 생산한 친환경 E0 등급 보드로 제작한 제품이다. 유해 물질로 인한 실내 공기질 저하와 새집 증후군을 방지할 수 있다. 디하임 패턴은 가전 제품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인테리어에 통일감을 준다. 소비자 선호가 지속적으로 높은 색상 10종을 준비했다.

/김승호 기자

‘사업장 쪼개기’로 노동법 회피기업… “무관용 원칙 확립”

고용부, 충남 소재 기업 2곳 적발

5인 이상 사업장인 한 가스충전소는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100명 규모 한 제조업체는 사업이 어렵다며 직원 상여금은 체불하면서도, 대표이사과 그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과 충남 소재 두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부산 지역 여러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온 A 업체는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A 업체는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는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다른 충전소의 경우도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53명에 대해 1억8200만원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와 과태료 1650만원을 부과했다.

근로자 100여 명이 종사하는 충남 소재 B 제조업체의 경우 경영이 어렵다면서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줬다. B 업체 역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B 업체는 2021

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B 업체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총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돼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디지털육종으로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농산물 시대 온다

르포

농촌진흥청

빅데이터 기반으로 신품종 개발
AI·로봇 활용해 농업생산성 향상
개인·식물 정보 이용해 맞춤 생산
한국, 1년 후 농림위성 발사 계획

지난 5일 전북 전주에 자리한 농촌진흥청을 찾았다. 이곳 지명인 '농생명로'답게 청 본부를 각 소속 연구동(과 학원)이 드넓게 에워싸고 있었다. 연구동 사람들은 미래농업 가꾸기에 한창이었다.

다소 희한한 장면이 방문 직후부터 눈을 사로잡았다. 컨베이어 벨트 위의 작물들이 엑스레이실을 줄지어 들락날락하고 있던 것.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의 김남정 부장은 "여러 각도에서 영상 센서로 사진을 찍어, 작물 종자의 특성과 생육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전체 정보와 재배환경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다량 확보돼 있다. 이에 반해 유전형과 재배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표현형은 그간 수작업에 의존하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본부 인근에 위치한 농업위성센터.



지난 5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표현체 연구동' 내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진 작물들이 엑스레이실(왼쪽)로 진입하고 있다. /메트로

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탓에 관련 정보 확보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이후 지난 2017년 이 '표현체 연구동'이 준공됐다. 연구동 스마트온실 내에 가시광, 근적외선, 형광 등의 센서를 컨베이어 시설 및 로봇의 자동화를 통해 구축해 놨다. 최대 1012개체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 디지털 육종(품종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일) 기술의 도약에 밑거름이 될 것이란 게 농진청 측 전망이다.

농진청은 표현체 인프라를 활용해 밀

양23호와 기호벼의 교배를 시도했다. 이어 2~4주 자란 어린식물에서 유전자 위치를 찾아내 수확량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또 콩 종자 특성을 영상으로 측정해 크기, 매끄러운 정도의 분석방법도 알아냈다. 이러한 성과는 해외 논문 SCI에 게재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표현체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에 정보통신(IT), 이미지영상, 로봇공학, 인공지능(AI) 등이 융합적으로 결합돼 있다. 종자를 비롯해 농기계, 분석 서비스 등의 농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디지털 육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합한 재배품종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적정량의 생산은 농산물 파동(쌀 과잉 생산 등) 같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 부장은 "미래엔 개인의 정보와 식물의 정보를 이용해, 기호 및 건강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소비하는 '맞춤형 농산물 생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육종 기술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 바이엘社 등은 소규모 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의 빅데이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만, 농진청 주도로 벼와 콩 등 주요 작물의 유전체 정보·표현체 정보의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딥러닝(각종 데이터를 입력해 인공지능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통해 표현형의 예측 정확도를 높여 가고 있다.

우리는 1년 후쯤 농림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벼, 콩, 양파, 마늘 등 주요작물의 재배면적 및 생육을 추정하는 기술과 관측체계를 보유하게 된다. 올해 5월 문을 연 '농업위성센터'는 사전 준비에 한창이었다. 농업위성이 찍어 보낼 영상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수급 정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위성이 미국 중서부 지방의 옥수수과 콩 재배면적·생육 상황 등도 찍어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리, 미시간, 아이오와주 등이 속한 미 중서부는 '콘벨트'라 불리는 광활한 곡창지대다. 우리 농촌과 비교하는 데 쓰일 것이란 설명이다.

/전주=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에너지공 특허, 중소·중견기업에 무료 나눔

산업부, 내달 21일까지 신청 접수
한전·한수원 등 11개사 490개 보유
나눔대상, ESG 등 관련 특허 공유

에너지 공기업 11개사가 보유한 490개 특허가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무상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2024년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 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기술들을 공개하고 내달 21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석유관리원 등 11개사가 참여

한다.

나눔대상 기술은 에너지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이다. 주요 특허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시 별도 펌프 사용없이 압력차이를 이용해 충전하는 'LNG 충전 시스템', 배전선로의 과부하 차단스위치 교체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단스위치 교체장치' 등이 있다.

기술나눔 우수 사례를 보면, 지난 2021년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수전해용 멤브레인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한국에너지기술단은 해당 기술을 적용해 수소생산 효율이 개선된 수소셀을 개발, 지난해 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기술나눔 희망 기업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의 신청 홈페이지(www.tech-sform.io/techshare)를 통해 나눔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나눔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달 25일에는 기술나눔 관심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하는 '기술나눔 현장 설명회'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490건의 나눔기술들을 제공하는 이번 공고는 올해 총 1153건의 기술을 제공한 기술나눔 공고들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며 "이번 나눔기술들은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준비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과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촌 빈집재생·체류단지 조성에 20억 투입

농식품부,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에 빈 집을 활용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19억89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농촌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빈 집 활용과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 예산은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13억5000만 원)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1억8900만 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4억5000만 원) 등이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관내 빈 집 실태를 파악한 뒤, 그중 빈 집을 민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빈집 거래 활성

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파악한 빈집 중 거래가 가능한 빈집에 한해 빈집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한 후 매물과 지원을 통해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그리고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민간과 협력해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3개소를 선정해 3년간 개소당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역의 스타트업 및 사회적기업과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빈집 재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부, 카타르·오만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녹색기술, 정부·바이어와 협력 강화

환경부는 오는 13일까지 카타르와 오만 현지에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은 우리나라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분야, 하수처리·해수담수화 등 수처리 분야의 국내 우수기업과 함께 카타르와 오만 정부 및 주요 발주처에 녹색기술 및 산업을 소개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가 목표다.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환경부 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자원공사, 한국물산업협회, 글로벌세아, 두산에너지빌리티,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등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 중동 녹색산업 시장 개척에 나선다.

수주지원단은 카타르 환경기후변화부, 자치행정부, 수전력청 등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양국의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녹색산업 기술설명회도 개최해 카타르에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기술을 소개하고, 기업별로 해외 구매처(바이어)와 수출 상담회를 갖는다. 이후 오만 무스카트로 이동해 오만 에너지광물부, 농수산수자원부, 수소개발공사(Hydrom) 등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을 협의한다. ▲그린수소 ▲정보통신기술(ICT) 수자원 관리 ▲담수화 기술 등 구체적인 녹색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폴리텍대, 신입생 4명 중 1명 '유턴 입학생'

실무 능력 쌓는 직업교육 인기

대학을 졸업했거나, 다니던 중에 그만두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재입학하는 '유턴 입학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2년제 학위과정의 유턴 입학생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6.8%, 2022년 18.3%를 기록한 유턴 입학생의 비율은 지난해(20.3%) 20%를 넘어선 뒤, 올해 23.3%까지 치솟았다.

유턴 입학생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신입생 평균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 평균 연령은 2021년(22세)부터 2022년(22.7세), 2023년

(22.8세)까지 꾸준히 증가해 올해 23.7세 올랐다. 대학 입학 연령(18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폴리텍대학은 취업 문제가 대학 졸업·수료자와 중퇴자의 유턴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는 직업교육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미래 유망 분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으로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채용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명절선물세트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당신 곁에. 마음을 보내주세요.



02-2273-4664

축산물 도소매 직거래 쇼핑몰

www.meatstation.co.kr

전남도,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으로 미래먹거리 확보 나서

해상풍력·영농형태양광 특별법 등 RE100 글로벌 중심지 기반 다져 에너지 고속도로 정부지원 건의 분산에너지법, 투자환경 조성 계획

전남도가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 김영록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한 전남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강조하며,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4법은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이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전남이 분산, 재생에너지100(RE100)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토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해상풍력.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사업 확장을 목표로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농업진흥

구역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 단지 모델을 제도화해 난개발을 막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전력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전이 전남과 같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법안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고속도로 건설비의 절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송배전시설) 또한 재정이 어려운 한전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의 경우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 PPA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제를 반영,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대응키 위해 지난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했다.

김 지사는 "미래산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고,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100에 잘 대응하는 것이 전남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4대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전남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수도로 힘껏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세계양궁대회 홍보대사 위촉

광주에서 열리는 2025세계양궁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본격 붐 조성에 나선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세계양궁대회(9월 5~12일)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9월 22~28일)를 알리기 위해 안산·기보배·김육금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들은 오는 12일 위촉장을 받고 양궁대회 알리기에 나선다.

세계양궁대회는 90여개국, 9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3개 호텔·1250개의 객실을 확보했으며 시설도 점검하고 장애인 휴게시설도 마련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전남도

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

전라남도는 연료비, 인건비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 및 적용기준에 따라 목포, 순천, 여수시 시내버스 요금을 10월 1일부터 인상한다.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인 1,700원(현행 1,500원), 중고생 1,350원(현행 1,200원), 초등생 850원(현행 750원), 좌석버스 2,400원(현행 2,10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정책에 따라, 본인 인증이 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현행대로 100원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강진군

'마랑미향축제' 2년 만에 열려

강진군 마랑면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13회 마랑미향축제'를 개최한다.

축제가 진행되는 장소는 매주 토요일 '마랑놀토수산시장'이 열리는 마랑미향 일원에서 열리며, 이번 축제는 코로나 여파 이후 개최된 지난 축제와는 달리 다양한 볼거리 및 푸짐한 경품추첨 등 관광객을 사로잡는 프로그램 등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2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마랑놀토 수산시장의 먹거리와 개막식 공연, 유명 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합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전국 1위

합천군이 2023년도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돼 교부금 6700만원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경유차량에 부과되며 환경개선비용 재원으로 사용된다.

군은 2023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3억 6000만원의 징수결정액 대비 3억원을 징수해, 82%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합천(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도, '결혼·출산·보육 거점' 선정

2026년까지 총사업비 50억으로 안동시에 맞춤형 시설 조성 예정 특화 프로그램, 종합 서비스 제공

경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확보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북 북부지역에 결혼·출산·보육 거점이 생겨 도민들이 이 분야 정보를 쉽게 얻고 특화 프로그램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공모는 인구감소 지역(전국 89개) 및 관심 지역(전국 18개)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전문가들의 현장 점검과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경북(안동), 강원(속초), 전북(익산)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북부지역 시군 공동 이용 및 협력, 돌봄과 일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편의점 등 특화 프로그램, 보건

소·도서관 등 인근 기관·시설과의 연계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 사랑 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특별교부세 38억원, 지방비 12억원)으로 안동시 운흥동 인근 건물을 개보수해 결혼·임신·출산·보육 등 핵심 분야별 맞춤형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층(결혼)은 청춘남녀 만남을 위한 청춘 놀이터, 북카페, 2층(보육)은 일자리편의점, 돌봄도서관, 3층(임신)은 임신부 상담소, 엄마 교실, 4층(출산)은 출산가정 종합상담, 가족놀이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곳은 또 시군 인구정책 부서와 병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새일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목포시-카카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수산물 판로 확대 등 협력방안 모색

카카오는 5일 목포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와 목포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산물 판로 확대 및 소비 촉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주문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에서 목포시의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기획전 등을 진행하고 여행, 체험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진행되는 둘레길 걷기 캠페인 '대한민국 한 바퀴 쉼터'의 서해랑길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 캠페인과 관광 상품을 연계·개발



전라남도 목포시청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박홍률 목포시장(왼쪽)과 카카오 김정민 리더.

/카카오

해 판매할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 사업가들을 위해 콘텐츠 제작, 제품 사진 촬영 지원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제품 판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해민 기자 hyem@

부산시교육청, 늘봄 프로그램 교재 보급

한글, 수학, 영어 보조 교재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부산형 늘봄학교 교육과정과 이를 보조할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교재를 현장에 보급한다.

이는 부산형 늘봄학교 체계 구축을 통해 질 높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늘봄학교 교육과정으로 ▲A형(교육청 표준 늘봄) ▲B형(학교 특색 늘봄) ▲C형(공공기관 연계 늘봄) ▲D형(민간 연계 늘봄) 등 4개 유형을 개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박재형 부산

교대 교수를 비롯해 교육연구사, 교사 등 12명으로 연구·개발팀을 꾸려 교육과정을 개발해 왔다. 이들은 부산형 늘봄학교 추진 방향, 중점과제, 교육과정 주제, 질 관리 방법, 단계별 운영 및 평가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부산교육청은 A형 교육과정의 한글 놀이, 놀이 수학, 놀이 영어 등 3개 영역과 이를 보조할 교재도 개발했다. 영역별 40차시 학습계획,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등 자료를 담은 현장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도,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대책 마련

3년간 고령자 보행사망자 65.5%

전남지역 65세 이상 보행교통사고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안전물품 제공 등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전남지역 전체 교통사고 보행사망자는 223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146명으로 65.5%를 차지했다.

2020년 83명 중 51명이 65세 이상이었으며 2021년 80명 중 59명, 2022

년 60명 중 36명을 각각 기록했다.

또 전남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25.2%로 전국 평균 18.2%보다 높아 고령자 교통사고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공단은 우선 수확철 농기계 사용·도로 보행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농촌마을 교통안전 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비롯해 고령자 전용 교통안전물품 배포, 마을 인근 도로 시설 현장점검을 통한 결함요소를 발굴 등에 나선다. /전남=양수영 기자

맞춤안경 만들고, 위조상품 적발... 패션계서 열일하는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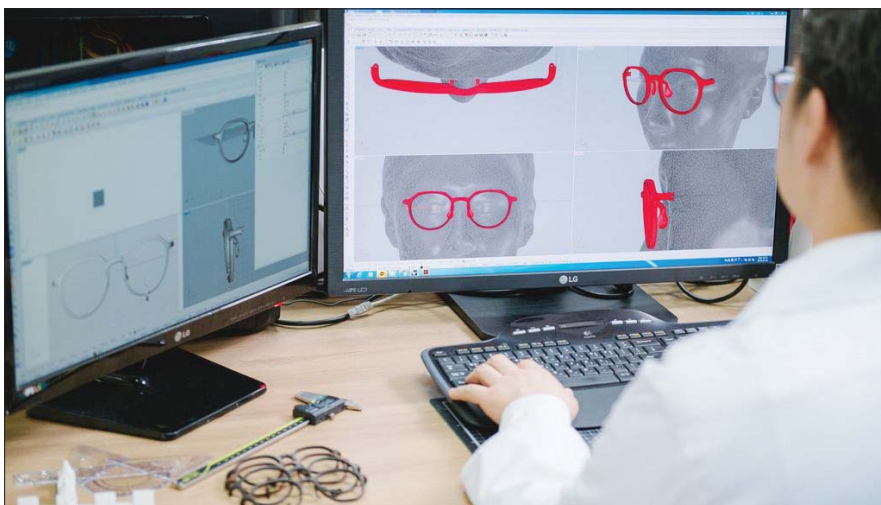
콤팩트 아이웨어 브랜드 '브리즘'
페이스 롤러로 맞춤 안경 제공

속옷 전문 플랫폼 기업 '풀라'
78개 고객 체형 데이터 기반 추천

브랜드 보호 전문기업 '위고페어'
AI활용 위조패션상품 유통 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패션업계에도 스며들었다. AI와 증강현실(AR) 등 발달한 기술을 활용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업체들이 AI 기술을 도입해 한 차원 더 높은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꾸준히 성장하는 AI 시장의 영향이다. 리서치 전문 기업 마켓앤마켓은 '2030년까지 글로벌 AI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AI 시장 규모가 2023년 1502억달러에서 2030년 1조 3452억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아이웨어 브랜드 브리즘의 AI 기반 맞춤형 안경 제작 과정을 담은 모습.

/브리즘

흐름에 발맞춰 패션업계도 발 빠르게 관련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핏테크(Fit-Tect) 기술이다. 핏테크는 소비자의 체형(Fit)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소비자의 체형을 미리 파악해 알맞은 제품을 추천해 주는 기술 서비스를 뜻한다.

콤팩트 아이웨어 브랜드 '브리즘'은 국내 최초로 안경 제작에 3D 스캐닝을

기술을 도입했다. 3D 기술 활용을 통해 제품을 1대 1 고객 맞춤 설계로 제작하고, 고객 얼굴에 맞는 안경 상품을 추천한다.

브리즘은 3D 스캐너 기반한 자체 개발한 시스템 '페이스 롤러'를 통해 고객 얼굴을 정밀 분석한다. 얼굴 좌표 1221개를 인식해 18개의 주요 지표를 추출한 후 얼굴 너비, 동공 거리, 귀 및 코 높

이 등 고객의 안면 데이터를 형성한다.

박형진 콤팩트 대표는 "맞춤형 안경에 대한 고객들의 갈증을 반영하듯 올해 상반기 기준 브리즘의 재방문 고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며 "물리적, 광학적, 심미적 측면에서 남녀노소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속옷 전문 플랫폼 기업 풀라(POLA)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다. 풀라에 따르면 풀라는 단순 알고리즘 기반이 아닌 3만 건 이상 고객 설문과 AI에 기반한 78개의 고객 체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가슴 체형을 분석한다. AI 속옷 상담사가 직접 고객에게 맞는 속옷 크기와 스타일로 추천한다.

아울러 풀라는 누적된 국내 여성 고객 15만명의 3차원 체형 데이터를 분석해 자체 브랜드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분석 결과 60% 이상의 국내 여성이 위블룸이 없는 가슴 체형인 것을 파악, 이 같은 특성에 맞게 와이어 없는 '브라렛'

을 주력 상품으로 출시했다는 게 풀라 측의 설명이다.

한편, AI를 활용해 위조 패션 상품을 잡아내는 기업도 있다. 브랜드 보호 전문 기업 위고페어는 데이터 크롤링과 인공지능 이미지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패션 플랫폼 내에서 위조된 상품 유통을 차단한다.

실제 위고페어는 지난 5일 '패션 뷰티 브랜드를 지키는 위조상품 대응 및 신고 실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패션 위조 상품의 최근 동향과 대응 전략에 대한 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위조 상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남양유업, 현대백 중동점에 '백미당' 오픈

아이스크림·커피 브랜드 매장
유기농 우유 '아이스크림 라떼'
키링 증정 등 오픈기념 이벤트

남양유업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아이스크림·커피 브랜드 '백미당'을 신규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백미당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백화점 내에서 유동 고객이 가장 많은 '유펙스' 구역에 위치했다. 영화관과 패션 브랜드 등 접객력이 우수한 점포들 사이에 입점해 향후 인접 브랜드와 연계한 다채로운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백미당 매장과 달리 새로운 인테리어로 기존과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해당 인테리어는 차후 다른 매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남양유업이 2014년 론칭한 백미당은 청정 농가에서 생산한 유기농 우유를 사용, 담백한 풍미가 진하게 느껴지는 아이스크림과 라떼를 시그니처 메뉴로 제공한다. 또한 수박, 멜론, 홍시, 딸기 등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계절 메뉴를 개발해 다채로운 디저트도 선보인다.

남양유업은 신규 매장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미당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백미당 키링을 증정한다. 또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수제 약과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30일까지 '매장 방문 인증샷 SNS' 이벤트를 병행한다. 백미당 현대백화점 중동점 방문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한 방문객에게 추첨을 통해

백미당 모바일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백미당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양유업은 60년 오너 체제를 끝내고 지난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우유(맛있는우유G.T), 분유(아이엠마더), 발효유(불가리스), 가공유(초코에몽), 차(17차), 단백질(테이크핏) 등을 주력 제품으로 시장 내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과의 상생 노력을 통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으며, 뇌전증 및 선천성 대사질환 환아를 위한 특수분유 생산 보급 활동을 이어오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스타벅스, 전 군장병에 아메리카노 쿠폰

'히어로 지원 프로그램' 론칭

스타벅스코리아가 다가오는 국군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스타벅스는 올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신하는 히어로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히어로(영웅) 지원 프로그램'을 론칭했으며 지난 5월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여해 국군장병들을 첫 번째 히어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스타벅스는 오는 10월부터 ▲전 장병 대상 아메리카노 쿠폰 제공 ▲전방 부대 방문 음료 제공 ▲취업박람회 및 취업 상담 진행 등 군장병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친다.

우선 10월 중, 51만 명의 국군장병 모두에게 군인 전용 앱을 통해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고,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주요 부대 인근에 위치한 스타



스타벅스는 올해 '히어로 지원 프로그램'을 론칭했으며, 다가오는 국군의 날 국군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스타벅스 코리아

벅스 매장에서 군 장병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슬리브를 사용한다.

또, 스타벅스는 협약 기간 중 전방 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을 위해 부대를 직접 방문해 1만여명의 장병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전역 예정 장병들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상담을 진행하는 등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매일유업, 시니어 영양식 '오스트라라이프'

추석 맞아 단백질 선물세트 추천

매일유업 자회사인 매일헬스뉴트리션이 추석을 앞두고 시니어 맞춤 영양식 '오스트라라이프(사진)'와 성인용 단백질 영양식 '셀렉스 프로틴 락토프리' 선물세트를 추천했다.

시니어 맞춤 영양식인 오스트라라이프는 천혜의 자연 호주산 산양유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으로, 시니어의 영양 보충은 물론 소화 흡수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100g당 호주 산양전지분유를 31% 함유하고 있어 국내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중 2024년 7월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산양유 단백질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2.4% 밖에 안되는 귀한 산양의 원유로 만든 프리미엄 원료로 그 구조



가 산모의 모유와 유사해 소화가 편하고 흡수율이 높다. 매일헬스뉴트리션은 시니어 필수 영양 보충을 위해 고품질 단백질인 '호주 산양유'를 기본으로 알파-리놀렌산, 오메가3(EPA+DHA 30mg), 식이섬유 등을 균형 있게 배합하고 15종의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담았다.

'셀렉스 프로틴 락토프리'는 지방과 유당을 제거한 순도 높은 분리유청단백질(WPI)로 누구나 속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신원선 기자

이디야커피 꿀호떡 등 4종 재출시

이디야커피가 매년 겨울 시즌 큰 인기를 끌었던 '길거리 간식' 4종(▲팔 불어빵 ▲슈크림 불어빵 ▲꿀호떡 ▲콘치즈 계란빵)을 재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디야커피 길거리 간식은 지난 2020년 첫 출시 이후 가맹점 매출을 견인하는 겨울 시즌 대표 베이커리 메뉴다. 이번 신제품은 전년 대비 중량을 증가해 보다 풍족하게 즐길 수 있으며, '배 모자차' '홍시 동동 수정과' 등 이디야커피의 다양한 전통차 메뉴와 페어링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팔 불어빵'과 '슈크림 불어빵'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의 반죽에 달콤한 팔랑김과 부드러운 슈크림을 가득 채웠으며, 기존 미니 불어빵이 아닌 실제 불어빵 사이즈로 새롭게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CU, 대만서 'K-편의점' 홍보 나서

'K-관광 로드쇼 인 타이베이' 참여

CU가 'K-편의점' 홍보대사로 나섰다. CU가 우리나라 방식의 편의점을 세계 무대에 소개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3일간 대만에서 열리는 '2024 K-관광 로드쇼 인 타이베이'에 업계 최초로 단독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K-관광 로드쇼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 주최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유명 유통사, 항공사, 여행사, 식품 제조사 등 총 30여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루 1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CU가 K-관광 로드쇼에 참여하는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K-편의점이 집중 조명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CU의 해외 결제 이용 건수는 지난해 대비 1.5배 이상 대폭 상승했다.

CU는 한국의 편의점을 실제로 구현해 외국인들이 K-편의점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CU는 행사 공간을 ▲K-편의점 포토존 ▲K-편의점 히트 상품 소개 및 시식 코너 ▲외국인 전용 서비스 안내 및 혜택 제공 등 총 3개 섹션으로 구성했다.

/최빛나 기자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동물의약품 연구 ‘활발’

씨티씨바이오, 피부·피모 세정 효과
발포형 천연 옥용제 ‘에코신’ 출시
박셀바이오, 반려견 전용 면역항암제

사람용 치료제, 동물용으로 활용
뇌전증·유선암 치료제 임상진행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동물의약품 시장을 정조준해 피부 질환부터 항암, 인지 기능장애 증후군 등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연구 개발 전문 기업 씨티씨바이오는 반려동물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씨티씨바이오는 최근 반려동물 사업 부에서 첫 신제품으로 반려동물용 발포형 천연 옥용제 ‘에코신’을 출시하기로 했다. ‘에코신’은 체코 기업 바드에서 연구 개발 및 생산하는 제품인데, 세균성 피부병, 진균성 피부병 및 지루성 염증, 창상 등으로 인한 동물의 피부 및 피모를 세정하는 데 효과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 성분으로 동물 피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앞서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7월 반려동물 사업부를 신설했다. 지난 30년 동안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사업을 통해 쌓아



씨티씨바이오 반려동물사업본부가 체코 바드(BAD)사에서 연구 개발 및 제조하는 반려동물용 발포형 천연 옥용제 ‘에코신’의 국내 출시를 결정했다. /씨티씨바이오

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분야로 사업을 본격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씨티씨바이오는 지금까지 국내외 축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왔다. 씨티씨바이오가 자체 발효 기술력으로 개발한 ‘씨티씨자임’은 아시아 최초,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개발된 사료용 소화효소제다. ‘씨티씨자임’은 지난 201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국내 사료첨가제로는 처음으로 승인을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2023

년 글로벌 동물의약품 기업 휴베파마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는 세계 최대 곡물회사 카길과 협력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씨티씨바이오의 동물약품 사업 규모는 매출 구조 측면에서는 전체 사업의 40%에 달한다. 씨티씨바이오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68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전문 회사 박셀바이오는 국내 최초로 반려견 전용 면역항암제를 개발해 국내외 동물의약

품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셀바이오는 지난 8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박스루킨-15’ 대량 생산 및 투여 용량·용법 등에 대해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출원도 완료했다. 박셀바이오는 이번 PCT 출원을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박스루킨-15’를 수출하기 위한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셀바이오에 따르면 ‘박스루킨-15’는 개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 기존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반려견의 암을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갖췄다.

사람용 치료제를 동물용 의약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임상 연구에도 집중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HK이노엔은 아누스키나제(JAK) 억제제 계열의 바르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HK이노엔은 최근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약 후보 물질 ‘IN-115314’를 개발하는 임상 1상 시험에서 환자 모집을 마무리했다. 해당 임상은 건강한 성인 남성 자원자와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IN-115314 연고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경구용인 동물의약

품 개발의 경우 지난 6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임상 3상 신청을 완료했다.

신약 개발 기업 지엔티파마도 지난 6월 시판 중인 반려견 인지 기능장애 증후군 신약 ‘제다큐어’의 반려견 뇌전증에 대한 임상 시험 계획(IND)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제다큐어의 주성분인 ‘크리스데살라진’은 동물 모델에서 활성 산소와 염증을 억제해 해마 뇌 신경세포의 사멸을 막는다는 것이 지엔티파마 측의 설명이다. 지엔티파마는 해당 임상을 통해 크리스데살라진의 발작 억제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HLB생명과학은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동물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유선암은 피부암과 더불어 반려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종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HLB는 유선암을 비롯해 동물 림프암, 비만 세포암 등 다른 적응증에 대한 연구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인포메이션은 반려동물 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 4억4410만 달러에서 오는 2029년 6억4982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종근당건강, ‘스탬벨’ 시니어 앰버서더 모집

스탬벨 제품 사용한 4060 여성 대상
소비자 공감대 형성·후기 공유 기대
인체줄기세포배양액 등 함유 제품

종근당건강의 고효능 인체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브랜드 ‘스탬벨’이 4060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종근당건강은 ‘스탬벨’에서 시니어 앰버서더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종근당건강에 따르면 스탬벨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4060 여성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오는 10월 10일까지 홈페이지 및 SNS에 공개한 앰버서더 지원 링크를 통해 지원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종근당건강은 최종 10인을 선정해 1년간 메이크업, 스타일링 등을 제공한다. 또 스탬벨 셀 리제너레이터 제품군을 비롯해 신제품까지 사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종근당건강은 앰버서더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종근당건강은 이번 스탬벨 시니어 앰버서더 모집이 같은 고민을 가진 가진



고효능 인체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브랜드 ‘스탬벨’ 브랜드 모델 ‘박주미’ /종근당건강

소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생한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고객 중심 소비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출시된 스탬벨은 출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종근당그룹만의 기술력과 인체 유래 고효능 성분으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종근당건강 측의 설명이다.

스탬벨 셀 리제너레이터 제품군의 경우 인체줄기세포배양액, 수용성 콜라

겐, 마이크로바이옴 등을 배합한 독자 성분 ‘트리플 퍼펙터’를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종근당건강은 피부 본래의 구성 물질과 그 기능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종근당건강은 ‘나노좀테크놀로지’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이 나노좀 흡수 기술은 고농축된 성분을 캡슐에 담은 리포솜 공법으로 유효 성분의 피부 흡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종근당건강은 스탬벨 크림, 에센스, 앰플 등 스킨케어 제품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는 자외선 차단제인 ‘스탬벨 셀 유브이 쉴드 리제너레이터’도 추가됐다. 기존 브랜드 대표 제품인 ‘셀 크림 리제너레이터’와 ‘셀 에센스 리제너레이터’의 핵심 성분을 자외선 관리 단계에 접목한 것이다.

종근당건강은 향후에도 건강한 피부를 위한 고효능 제품을 강화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올리브영 경주항남점에서 화장품을 체험하고 있다.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경주에 ‘디자인 특화매장’ 개점

매장 고도화 정책, 전국단위로 확대
한옥 건축 양식으로 지은 ‘경주항남점’

CJ올리브영이 매장 고도화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지난 6일 경북 경주의 관광 명소 ‘황리단길’에 디자인 특화 매장 ‘올리브영 경주항남점’을 개점했다고 8일 밝혔다.

올리브영 경주항남점은 한옥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황리단길과 인접해 있는 경주 대표 문화유산인 대릉원, 첨성대 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래 건물에 있던 기와 지붕과 서까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장 내·외부를 회색, 흰색 등 무채색으로 꾸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것이 올리브영 측의 설명이다.

영업 면적 기준으로 65평인 단층 규모에 50평 면적의 마당을 함께 구성한 점도 돋보인다.

올리브영은 관광 목적으로 황리단길을 찾는 고객이 올리브영 매장에서 체류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올리브영은 방문 관광객들의 여행 목적지가 서울을 비롯해 지방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비(非)수도

권 지역에서 올리브영은 총 60여 곳의 매장을 새롭게 열거나 재단장했는데, 이 중에는 지역 랜드마크급으로 분류되는 ‘타운 매장’, ‘디자인 특화 매장’ 등이 다수 포함됐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지난 8월 재개장한 ‘대전 타운’과 ‘청주 타운’ 매장의 경우 개장한 첫 번째 주말에만 하루 평균 5000명에 달하는 고객이 방문하는 등 지역 상권의 새로운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4월 전주 객사길에 문을 연 ‘전주객사점’과 인근 타운 매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고객 모두가 즐겨 찾는 ‘K뷰티 성지’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그 결과, 올 1월~8월 기준 비(非)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전국에서 특화매장을 선보이며 지역 사회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올리브영 경주항남점’ 개점 기념으로는 황리단길 인기 숙소와 연계한 할인 행사를 운영한다. 올리브영은 ‘어느날경주’, ‘오원스테이’, ‘함남고택’ 등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주항남점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더후, ‘고급스러움’ 강조한 광고영상 공개

‘NAD파워 24’ 로얄 뷰티 사이언스 표현

LG생활건강의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더후’가 고급스러움을 갖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더후’가 글로벌 앰버서더 김지원과 촬영한 광고 영상의 전체 분량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브랜드 대표 제품 ‘비접 자생 에센스’의 핵심 성분인 피부 노화 완화 인자 ‘NAD+’를 소개한다. 특히 김지원의 연기와 내레이션은 LG생활건강이 개발한 고효능 성분 ‘NAD 파워24’를 중심으로 한 ‘로얄 뷰티 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다.

또 김지원이 도착한 ‘궁’을 왕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공간으로 재해석하

고,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베일’과 미래를 밝혀주는 ‘청사초롱’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등 더후 브랜드를 직관적이고 강렬하게 각인시키도록 연출했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LG생활건강은 앞서 지난 7월 글로벌 앰버서더로 김지원을 발탁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배우 김지원과 함께 ‘럭셔리 K뷰티’를 이끌어갈 ‘차별적 고객 가치’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미래를 먼저 만날 **SU** 있다 삼육대학교.

사람중심의 창의융합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AI, SW 기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
삼육대학교에서 먼저 만날 **SU** 있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안내

원서접수처 :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수시모집일 : 2024년 9월 9일(월) ~ 9월 13일(금)
입학처전화 : 02-3399-3377~3379
기타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http://ipsi.syu.ac.kr>)로 문의 바랍니다.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아동·청소년 가정 지원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아동 및 청소년 가정 보호 지원에 나선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아동복지 전문 기관인 초록우산, 청소년 미혼 부모의 자립 지원 단체인 킹메이커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왼쪽부터)배보는 킹메이커 대표, 권연주 희망스튜디오 이사,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이명신 초록우산 복지사업본부 팀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에어부산,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3자 업무협약

에어부산은 폐기물·자원순환 관리 플랫폼 '웨이블 서클러(WAYBLE circular)'를 운영 중인 SK에코플랜트, 리사이클링 업체인 대흥리사이클링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에어부산 민경태 경영본부장(가운데), SK에코플랜트 이세호 부사장(왼쪽), 박해란 대흥리사이클링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에어프레미아는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신규 채용 확대 ▲일자리 질 개선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위한 복지제도 강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금창현 에어프레미아 피플실장(오른쪽)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과 함께 인증패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

환경부

전국 무공해차 충전시설 점검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의 충전시설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8일까지 전기차·수소차 운행 증가와 충전시설 주변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의 사고대응 체계와 충전기 정비, 전화 상담·창구 운영 강화 점검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기 작동 상태 및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충전기의 고장여부 점검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연휴 기간 신속한 정비 체계 운영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에 나선다. /김대환 기자 kdh@

고용부

도약보장 패키지 수기 공모전

고용노동부는 내달 8일까지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해소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도약보장 패키지 수기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도약보장 패키지는 전담자가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진단·컨설팅해 취업·채용을 지원하는 1대1 맞춤형 서비스이다. 이번 공모전은 구직자·기업의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사례에 대한 수기부문과 도약보장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김대환 기자 kdh@

삼성전자, 물류 자동화 속도… 임직원 육체부담 줄인다

근골격계 질환 근절 TF 가동
모든 공정 조사… 개선점 발굴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가전, 휴대폰 등 전 사업장에 걸쳐 근골격계 질환 근절에 나선다.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제조 공정을 최소화하고, 물류 자동화를 통해 직원들의 육체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전국 사업장에 근골격계 예방센터 16곳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는 근골격계 질환 근절을 위해 DX/DS부문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이 포함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DS부문 임직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기흥사업장 6라인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



삼성전자 직원이 기흥사업장 근골격계 예방운동센터에서 1대1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라고 공지했다.

DS 부문은 기흥사업장 6라인 내 웨이퍼 박스 물류 작업의 자동화 비율을 수년 내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개선된 구조의 웨이퍼 박스를 도입한다. 새로운 웨이퍼 박스는 더

가볍고 잡기 편해 작업자의 손목, 손가락 부담을 줄여준다.

기흥사업장 내 부속의원에 재활 의학 전문의도 상주시킨다. 직원들이 사내에서도 외부 전문기관 수준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다.

삼성전자 DX부문은 생산라인을

아이오닉 6, 美 매체 '2025 최고 전기차' 선정

현대차 배터리 등 기술력 입증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기술을 인정받으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아이오닉6 전기차가 미국의 유력 매체에서 잇달아 호평을 받았다. 미국 자동차정보사이트 쉐릴블루북(KBB)은 6일(현지시간) 아이오닉6 평가 보고서에서 "2025년형 아이오닉6는 테슬라 모델3의 강력한 라이벌"이



현대차 아이오닉6.

라며 전기차 세단 부문 최고 추천차로 뽑았다.

KBB는 "아이오닉6는 전기차 측면에서 최대 361마일의 경쟁력 있는

주행거리를 제공하고 배터리 충전에 걸리는 시간 18분은 다른 전기차가 이기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이오닉6는 지난 7월 말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의 전기차 평가에서도 '대중 전기차'(Mainstream electric cars)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컨슈머리포트는 아이오닉6에 대해 "빠른 DC 고속 충전과 함께 뛰어난 실내 정숙성, 부드럽고 빠른 가속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

NS홈쇼핑, 협력사 대금 250억 조기지급

NS홈쇼핑(대표 조항복·사진)은 8일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판매 대금의 조기지급에 나섰다

회사 측은 고물가와 불황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협력사들과 상생협력하기 위한 차원이

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상 지급 예정일인 20일보다 8일 전인 12일 약 25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대상협력사는 약 1000여개사이다.

NS홈쇼핑 경영지원본부의 박성민 이사는 "명절을 앞두고 원활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중소기업 협력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대금 조기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NS홈쇼핑은 협력사와 신뢰를 기본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포스코그룹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포스코그룹이 2024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 이번 공채는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IH, RIST 총 6개사가 동시에 진행한다.

8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입사지원서는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3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포스코그룹은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 각 회사의 채용 전형을 소개한다.

/양성운 기자

KT&G, '대단한 단편영화제' 개최

상상마당 홍대서 49편 작품 상영
KT&G가 오는 10일까지 KT&G 상상마당 홍대 시네마에서 '제16회 대단한 단편영화제'를 개최한다.

KT&G 상상마당 홍대는 국내 유수의 단편영화를 발굴하고, 잠재력 있는 영화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대단한 단편영화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는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총 766편의 단편영화 중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본선 진출작 25편이 상영

된다. 이에 더해 전년 수상작 5편, 심사위원 참여작 6편, 대학생 성장지원 플랫폼인 'KT&G 상상유니브' 학생들이 영화감독과 함께 만든 단편영화 3편 등 총 49편의 풍성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2007년 '상상마당 홍대'를 시작으로 논산·춘천·대치·부산까지 총 5곳에서 운영되며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갖춘 광주, 구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모든 공정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발굴하고, 개선 조치하고 있다.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들을 중증과 경증으로 분류해 '1대1케어' 등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처방을 벌인다. 이들 직원들은 사내 근골격계 예방센터와 물리치료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업무 중 근육 피로 해소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예방센터 16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3차원 체형진단 시스템 ▲균형능력 검사기 ▲동적 족저압 측정기 ▲고압 산소탱크 ▲무동력 트레드밀 ▲척추 근력강화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호서대학교가 지난 5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버나디노(이하 CSUSB)에서 '공동 교육협력 과정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호서대

호서대

CSUSB 공동교육 협력

호서대학교는 5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버나디노(이하 CSUSB)에서 '공동 교육협력 과정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호서대는 CSUSB와 협약을 통해 유학생을 포함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융복합 교육 및 자율전공 등 변화된 교육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호서대에서 비학위 별도 과정으로 한 학기 3과목을, CSUSB에서 자신이 원하는 MBA, MSA, MSF 과정을 선택해 이수하면 미국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 세무사 시험 응시가 가능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

소공연

디지털 교육센터 개관

소상공인연합회가 카카오톡과 함께 서울 마포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를 열었다.

마포교육센터는 지난해 8월 체결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카카오톡의 지원을 받아 설립했다.

소공연은 개관과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4주만에 끝나는 디지털 전환 완전정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MUSEUM L

다양한 장르의 특별한 전시 **뮤지엄엘**

GRAND OPEN

오픈 기념 할인 & 이벤트 진행중

MONA LISA

모나리자 이머시브

2024.07.26 - 2025.07.25 뮤지엄엘 1관

ALBERTINA MUSEUM COLLECTION

ALEX KATZ

알렉스카츠

2024.07.26 - 2024.11.17 뮤지엄엘 2관

위대한 농구선수 75인 전

2024.07.26 - 2024.12.15 뮤지엄엘 3관



@museum.l

카메라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오픈특가,
카페할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뮤지엄엘 인스타그램> 링크로 연결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 상상플랫폼 1층

상속채무, 파산 통한 정리도 가능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경향이 없는 와중에 채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해 단순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아 독촉에 시달리게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다.

법적인 상속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거나, 상속과정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포기(상속 자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나 한정승인(상속으로 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 부담을 지는 것) 등을 논의해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상속절차를 잘 모르거나, 채무 파악이 어렵고, 도와 줄 변호사가 없을 경우 뒤늦게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단순상속 또는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상속채무가 매우 많고, 채권자들도 다수일 경우 상속재산파산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

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제307조)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뒀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해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예를 들어보자. A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대표로서 연대보증한 회사 채무들을 그대로 상속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면서 회사의 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고, 아버지가 부담했던 연대보증채무도 점점 증가하는 중이다. 다행히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순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한정승인을 택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아버지의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차량도 있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도 있어서 그 가치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씩 분배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 와중에 아버지의 사망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불안함에 A에게 채권변제

를 앞다퉈 독촉하는 중이다.

물론 A는 임의매각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비율대로 분배하는 청산과정을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A가 임의대로 청산을 진행하다가 채권비율대로 배당이 되지 못했거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게 되면 추후 채권자들로부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다(민법 제1038조). 물론 청산과정에서 직접 채권자들과 연락해야 하는 것 역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는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절차와 함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M&A)에 의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면 A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일단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환가 및 배당 과정을 모두 파산관재인이 총괄하게 된다. A가 더 이상 채무의 변제 방법이나 배당률 계산 등에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갈라치기 연금



기자 수첩
안 승 진
(금융부)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세대별 차등화’가 등장했다. 연금보험료율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기간이 긴 청년세대와 보험료를 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성세대에 차등을 두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세대별 차등화 방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청년세대에게 이례적으로 호응을 얻었다. 고령화 및 출생률 감소로 향후 보험료를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경제 성장기의 수혜를 본 기성세대가 그 부담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성세대는 세대별 차등화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은 전례가 없고, 연금 소득이 없는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와중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발이다.

세대 간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일각에서는 ‘갈라치기’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일방적으로 많은 부담을 짴어진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부담하게 될 최종 연금보험료율은 13%로 같고, 현행 보험료율인 9%에서 최종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기간에서만 차이가 있다.

함께 논의되는 ‘자동조정장치’에 따라 출생률 반등 없이는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반대로 내야 할 보험료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성세대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파른 출생률 감소로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정치권은 ‘표 싸움’을 위해 갖은 이유를 들어가며 연금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어제는 여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지연시켰다면, 오늘은 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지연시키는 모양새다.

결국 ‘갈라치기’ 또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켜야 할 정치권이 그 역할을 포기하고, 반대로 갈등을 부추기면서 등장한 표현이다.

연금개혁 없이는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본연의 역할인 계층 간 격차 완화, 노인 빈곤의 해소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정쟁과 표 싸움을 뒤로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asj123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9일 (금 8월 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번뇌에는 기도나 명상으로 극복해나가는 수밖에. 48년생 때를 만나는 것처럼 제2의 인생 기회로 좋은 일. 60년생 가족의 구호는 겸손으로. 72년생 부모님 차를 바꾸려면 연금 관련도 점검해볼 것. 84년생 낮에 운전은 신호대로 가야.

37년생 문화센터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자. 49년생 양지보다 음지를 선택해서 사는 동식물이 있다. 61년생 심은 대로 거두니 약속 지키며 살자. 73년생 인생에 운이 없으면 피장봉호避難逢虎 노루를 피하니 범이 온다. 85년생 계약이 성사.

38년생 손톱에 뿔단배 가듯이 손조로운 하루. 50년생 너무 늦은 깨달음으로 발등을 찍고 싶다. 62년생 장애를 거치고 나면 다른 장애가 기다리는 것이 인생사. 74년생 기술 배우는 것을 시작해보자. 86년생 통사지으면서 풍년에 감사하다.

39년생 가족과 이별하는 기간을 받아들이자. 51년생 역사에서 왕권과 이성계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듯. 63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75년생 기량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한다. 87년생 희망을 품어라 다가온다.

40년생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국에 나에게 돌아온다. 52년생 깔끔한 포기가 나도 상대방에게도 좋은 일. 64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76년생 풍수의 적용은 무덤만이 아니라 실생활에도 적용. 88년생 솔로몬의 지혜를.

41년생 돈 없는 친구를 무시하지 말 것. 53년생 동물을 키우려면 먼저 기본 질서부터 지킬 것. 65년생 삶은 계속되고 꿈같은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다. 77년생 남을 이간질하면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니. 89년생 5시 신호를 지켜라.

42년생 자식 자랑하느라 입에 침이 마를 지경. 54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스스로 만들어 써라. 66년생 운세가 상승선에 있으니 추진해도 될 듯. 78년생 운이 원만하니 이사를 하고 승진 소식. 90년생 몸이 아플 수 있으니 건강주의.

43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55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당연히 더러워진다. 67년생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도록. 79년생 흉망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지니 기다려라. 91년생 오는 외출한다면 좋은 일일.

44년생 동물을 생명으로 보는 마음. 56년생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면 낭패를 당한다. 68년생 진실이 항상 최상의 답은 아니다. 80년생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니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까지는. 92년생 기름진 땅이 번식 될 수.

45년생 뒤늦게 다시 비상한 발전이 따른다. 57년생 슬픔이 주는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극복해야 한다. 69년생 조직에서 귀인의 도움이나 원조가 오고 있다. 81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되니 최선을 다하라. 93년생 하루 시작을 기념.

46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58년생 수영을 하러 바다에 나왔으니 일단 물에 입수. 70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 82년생 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결국 레드카펫의 주인공이 된다. 94년생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47년생 자식 끼리 자두연기 되지 않게. 59년생 실패를 겪어봐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71년생 뭔가를 위해 노력할 때 반사 이익이 있다. 83년생 세상일이 뜻대로 잘될 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시작을. 95년생 동료 따돌리는 일이 없도록.

김상회의四季

중화는 삶의 지혜

월요일 병자일丙子日 백로白露가 지났으니 갑진년甲辰의 계유월癸酉이다. 명리십간命理十干에서 수화희상제 水火希相濟하니 병화丙火가 임수壬水를 만나고 임수가 병화를 보면 귀貴를 말 할 수 있다. 강휘상영江暉相映 강물과 햇빛이 반짝이며 비추어지니 충성심과 복종심이 두터우므로 조직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임壬과 병丙에 목木이 통관通貫하면 귀명貴命이 될 수밖에 없다. 병화는 임수를 만나 기뻐하는데 계수癸水는 빛을 가리는 구름과 같아 꺼린다.

이때 임수壬水는 통근通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고로 병화일주는 일 년의 계획에서 7월 壬申월에 결실을 거의 마무리했어야 함이다. 부족함이 있다면 8월 계유월 癸酉月을 보내고 9월 갑술월甲戌月을 기대하면 될 것이다.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사주는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사주라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일 수도 있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팔자에서 대부분 어떤 기운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또 어떤 특징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모자라다거나 없는 글자가 많다. 이를 두고 사주를 나쁘다 좋다고 논하기는 어렵다. 부족하고 넘치는 기운을 취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명리학 고전에서는 말한다.

예로부터 삶에서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충돌이 생길 때 중용을 지표로 삼았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삶을 평온하게 만들어 준다는 철학이다. 명리학이 중요하게 추구하는 중화는 결국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균형과 조화는 삶의 근원적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는 데는 팔자학에만 국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덜어내고 채우라는 말인가. 그런저런 연유로 효 풍수부적 기도 적선 공덕 기다림 등 방법을 찾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출간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친환경 에너지에 자율주행... 4차 산업혁명 이끄는 세계도시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신기술로 미래교통·주거환경 개선
中 선전시, 자율주행차 시험도로 확대
美 보스턴,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도입

자율주행차 인프라 조성,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도입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최첨단 기술을 시정에 적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8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는 자율차를 운행할 수 있는 시험도로 944km를 확보해 운영 중이다. 시험도로가 길면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환경과 조건의 도로를 운행하면서 데이터를 축적, 도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고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선전시는 중국 내에서 가장 긴 시험 도로를 갖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는 완전한 자율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도시 내 자율주행차와 친환경 기술이 결합된 미래 도시의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지방 법규(선전시 스마트 온라인 자동차 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도시이기도 하다.

해당 도로교통 법규에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되는 차량으로 명시돼 있다. 모든

유형의 자율차는 시가 지정한 도로 구역에서만 주행돼야 한다는 내용도 법규에 포함됐다. 자동차와 도로, 차와 차 사이 무선 정보의 교류·공유 등 자동차와 도로의 협동 기초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도로 구역에서만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본 조례에 모든 유형의 자율차는 운행할 때 다른 차량과 주변 보행자가 자율주행차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놓았다.

서울연구원은 “이 법안으로 인해 시험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하기 기록을 쌓고 일정한 성과를 거둬야 자율주행의 본격적인 상업화가 가능해졌다”며 “선전시는 자율차가 시험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중국 전체 19개 업체, 349대의 다양한 차량이 운행되면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보스턴시는 저소득 가구가 밀집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프랭클린 필드 지역의 공공주택에 네트워크 지열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지열 기술은 지면 온도와 지하 배관 네트워크를 통해 건물에 효율적으로 냉·난방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겨울에는 지면에서 열을 끌어올려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여름에

는 실내 열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스턴시는 기존 가스 공급 서비스를 전기 난방 시스템으로 대체해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시범 사업 대상은 7개 연방 공공주택 건물이며, 총 129세대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설계 및 주민 참여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건설에 들어가 노후화된 가스보일러 시스템을 네트워크 지열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연구원은 “보스턴시는 네트워크 지열 난방을 도입하면서 기후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을 우선시해 환경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냉·난방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가전제품 교체를 병행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 제고와 공기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중·고 교사 3000명 ‘수업 나눔’ 진행

3개월 간 서로의 수업 참관·공유
AI·토론수업 방식 중심 정보 교류

서울 관내 중·고교 교사 3000여명이 서로의 수업을 참관하고 배우는 ‘수업 나눔’이 3개월간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AI를 활용하거나, 학생 토론 수업 방식을 중심으로 정보가 교류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설세훈)은 9월에서 11월까지 중·고등학교 교사 3000여명이 참여하는 180개 수업 나눔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업나눔은 지난 2019년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모여 자발적·협력적 수업 나눔을 하고, 수업 혁신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출범한 ‘수업·평가 나눔 교사단’ 주도로 진행된다. 교사단은 교과별·주제별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해 공동연구 및 수업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수업·평가나눔 교사단에는 ▲일반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예체능 교과(음악, 미술, 체육 등) ▲소인수 교과(특수, 보건, 진로 등) 분임을



지난 5월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청계초등학교 1층 과학실에서 6학년 1반 학생들이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주제로 다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현미경을 활용한 세포 관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뉴스시스

포함해 독서토론, AI·에듀테크, 융합교육, IB 교육과정 등 주제별 분임도 조직돼 있다.

이번 수업 나눔은 그동안 월 1회 이상 분임별 수업 연구 모임을 통해 실시한 공동수업 설계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수업 나눔은 11개 교육지원청별로 관내 모든 학교에 안내되며, 참관을 원하

는 교원은 참관 희망 수업을 선택해 개별 신청 후 수업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AI·에듀테크 활용 수업 ▲학생 참여형 탐구·토론 수업 ▲탐구 질문을 활용한 협력적 활동 수업 등이 수업 나눔 주제로 선정됐다.

예컨대, 남부교육지원청 디지털교육분임의 경우 ‘AI 디지털 기반 개별 맞춤형 수업-삼각형의 성질 단원 수준별 문제 풀이’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한 수업을 나누며, 동부교육지원청 고등독서토론 분임은 ‘학생이 질문하는 문학수업’을 주제로 학생의 탐구질문을 바탕으로 학습자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게 된다.

교사단 활동 교사들은 수업 나눔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교육청이 실시한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대상 설문 결과, 실제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활동 교사 92%는 교사단 활동이 본인의 교실수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현진 기자

51억 규모 ‘청년자율예산 대시민 투표’ 시작

서울시, 내달 7일까지 투표 실시

서울시는 이달9일부터 내달7일까지 ‘2025년 청년자율예산’ 10개 사업에 대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8

일 밝혔다.

청년자율예산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내년 청년자율예산은 총 10개 사업,

51억33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청년들은 ▲소형 전자제품 및 배터리 분리배출 홍보 ▲고립·은둔청년 기후동행카드 지원 ▲취약계층 청년 도약 날개 ▲서울시 배리어프리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의회,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 또 부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차질

고양시의회가 킨텍스 호텔부지(S2부지) 매각을 반대하며 시 집행부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재원 마련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는 킨텍스 방문객들의 소비 활동을 통해 기대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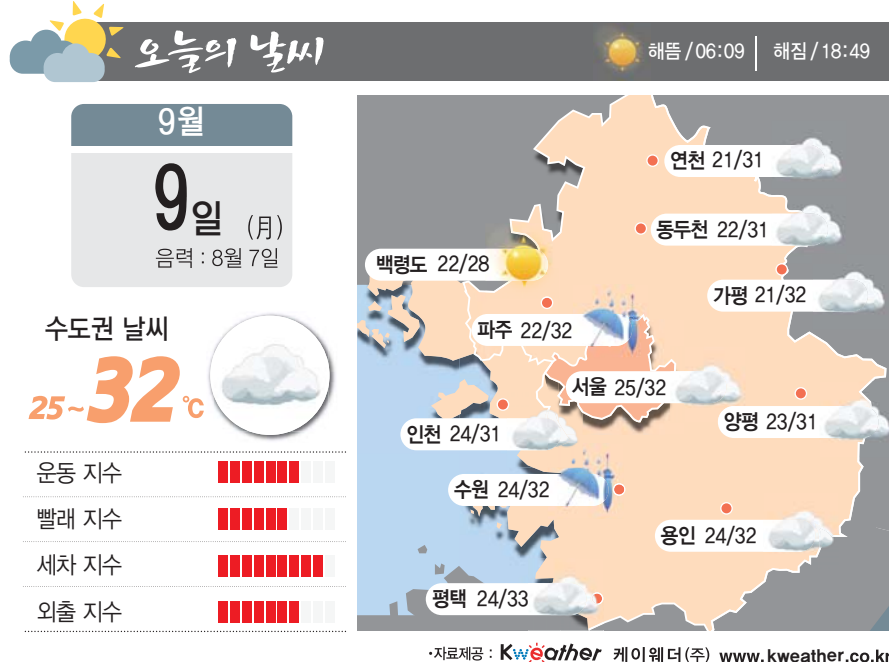
고양시는 킨텍스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호텔부지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5일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는 지난5월에 이어 두 번째 부결된 것이다. 이에 고양시는 즉각 반발했다. 2,250억 원 규모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비용 부담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연이은 부결은 곧 제3전시

장 건립 중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내년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수백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시는 호텔부지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번 부결로 재정 부족으로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자산이 매각되면 정책 목적이 달성되고 재정건전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이번 부결은 이례적인 사례”라며, “호텔부지는 킨텍스 건립 당시부터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된 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십 수년간 매각되지 못한 부지를 매각하려는데 지원은 커녕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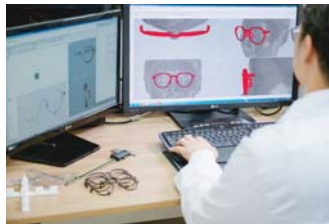


▲ 북한, 한미 첫 NCG연습에 반발... “핵위협 공갈에 대비 조치”
▲ 태풍 야기 中 강타... “4명 사망, 95명 부상” 피해 속출 /사진 뉴시스

▲ 지진 공포에 사재기 나선 日... “‘난카이 대지진 정보’ 후 생수 등 매출 2배 ↑”
▲ 엘런 머재우 “미국 경제 ‘연착륙’으로 가는 중... 中에 다시 갈 수도”



▲ 이스라엘, 필라델피 회랑에 포장 도로 건설... “철수 않겠다 결의”
▲ 伊 총리, 젤렌스키 만나 “우크라 포기 해선 안돼... 지원 변치 않아” /사진 뉴시스



맞춤안경 만들고
위조상품 적발
열일 중인 SI
L1

metro®

Life

제약·바이오업계
동물의약품
개발 활발
L2



“디지털로 빛나는 전통… 3D프린팅으로 폭넓은 예술 창조”



새벽을 여는 사람들

도자기 공예가
황인규 씨

“작은 앞매이 나무의 전체 구조를 닮아
가듯, 작업을 할 때는 반복되는 패턴을 통
해 영감을 얻습니다.”

도자기 작업실에서 만난 황인규 도자기
공예가(30세)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어디
서 영감을 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고딕 건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반복적이고
수학적인 패턴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그는, 특히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프랙탈
구조’에 주목했다. 프랙탈 구조란 작은 구
조가 전체 구조와 닮은 형태로 끝없이 되풀
이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그의 도자기 작업에서도 반복적이고 대
칭적인 형식이 반영됐다. 이는 자연의 섬세
한 패턴을 도자기에 담아내려는 그의 의도
를 보여준다.

황 작가의 도자기는 단순한 공예품을 넘
어 건축적 심미성을 담고 있다. 3D 프린팅
을 통해 만들어진 정교한 디자인이 흙의 따
스한 감성과 어우러져 특별한 예술 작품으
로 탄생했다.



황인규 작가가 도자기 공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 기술과 전통의 융합… ‘예술적 여정의 이면’

황 작가와 도자기와의 첫 만남은 다소 특
특했다. 그는 대학 시절 유리세라믹디자인
학과를 전공하며 가상의 그래픽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3D 프린팅’ 기술을 배우기 시
작했다. 이를 기점으로 3D 모델링에 매료
됐다고 그는 언급했다.

황 작가는 “3D 모델링을 배우는 과정에
서 흙이 지닌 유연성과 감성에 마음이 끌렸
다”며 “흙을 손으로 질 때마다 어떻게 나만
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늘 고민했
다”고 말했다.

그의 길은 졸업 후 전업 작가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세
라믹기술원에서 도예가들과 작업을 하며
디지털 기술과 전통 도자기 기술의 융합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

황 작가는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며, 전통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매개
체”라 표현했다.

그는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기 위해 우
선 큰 테마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주
로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고 해당 아이디어
를 디지털 스케치로 발전시킨다. 디지털 스
케치는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화
면에서 비례와 크기를 조정하며 구체적인
형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후 3D 모델링이 완성되면 원형을 제작
한다. 이 원형을 바탕으로 석고 틀을 만드

대학시절 3D 프린팅 기술에 매료돼 유연성과 감성 담긴 도자기와 융합

반복적인 고딕 건축물에서 영감 얻어 디지털 기술로 정교한 석고틀 제작해 대표작 ‘미로 시리즈’ 통해 철학 표현

3D프린팅 활용한 도예 매력 알릴 것 일반인도 체험 가능한 공간 만들고파



황인규 작가의 대표 작품 ‘미로 시리즈’.

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석고 틀은
도자기를 만드는 거푸집처럼 사용되며 석
고 틀에 물을 주입해 도자기 형태를 만들어
낸다. 여기에 더해 정확한 형태를 위해 조
각도와 스핀지를 이용하게 세심하게 다듬
는 작업은 필수다.

완성된 도자기는 초벌구이와 유약 시유
과정을 거쳐 1250℃에서 고온 소성 과정을
통해 비로소 작품으로 탄생한다.

황 작가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물건
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 만
남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 “도자기 제작의 핵심은 흙의 성질을 이 해하는 것”

그는 무엇보다 흙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작가는 “도자기는 고온에서 구워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형되고 수축된다”
며 “이때 의도치 않은 변형이 생기는 것은
성형 단계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그가 도자기 제작에서 주로 사용하
는 기법은 ‘슬립캐스팅’이다. 해당 기법은
흙을 물에 개어 석고형틀에 주입하여 도자
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장주입성형’이
라고도 불린다. 슬립캐스팅은 대량 생산에
서 유용하게 쓰이지만, 공예분야에서는 양
산공정에서 할 수 없는 섬세한 작업에 활
용된다.

또한 작업 과정에서는 석고 원형이 필수

적이다. 전통적인 도자기 제작에서는 석고
원형을 수작업으로 직접 깎아 만들었지만,
황 작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다. 그는 3
D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원형을 설계한
뒤 실제 원형을 제작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형을 슬립캐스팅 기법을 활용하여 고유
의 디테일과 완성도를 갖춘 도자기로 탄생
시킨다.

황 작가는 “기성 도자기 제작 방식은 수
공으로 석고를 직접 깎아 제작했기에 형태
의 제약이 많았다”며 “디지털 기술 덕분에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도자기와 철학의 만남 ‘미로 시리즈’

황 작가는 자신의 도자기 브랜드 ‘비비드
스톤(VIVIDSTONE)’에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비비드스톤은 돌과 도자기가 열과
압력 속에서 태어난다는 공통점에서 아이
디어를 얻어 작업한 것이다.

그는 “열과 압력 속에서 어렵게 만들어지
는 도자기는 사람들에게 소유욕을 불러일
으켜야 한다”며 “비비드스톤’은 눈에 띄고
기억에 남는 도자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작업했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황 작가의 대표 작품은 ‘미
로 시리즈’다. 미로 시리즈는 그는 철학적
인 고민에서 시작했다.

황 작가는 “우리는 ‘삶’이라는 미로의 입
구에 놓인다”며 “출구를 찾기 위해 헤매는
것보다, 입구와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고 사라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로 시리즈는 ‘미로 속에서 헤매는 것만
으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
지를 전달한다. 황 작가는 미로 시리즈를
통해 도자기 작업의 깊이와 철학을 표현하
며 보는 이들에게 삶의 본질에 대해 사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황 작가는 도자기 디자이너로서의 미래
를 구상하고 있다. 현재 많은 제품의 디자
이너가 있지만, 도자기의 물성을 이해하
고 설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을 지
적했다.

그는 “전통적인 도자기 생산 방식에 디지
털 기술을 도입해 더 폭넓은 디자인의 도자
기를 창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황 작가는 4차 산업혁명 이후 3D
프린터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
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점을 아쉬워했
다. 그는 해당 기술을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도자기 체험 공방을 운영할 계획
이다.

황 작가는 “일반인들도 도자기 디자인과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며 “이를 통해 3D 프린팅을 활
용한 도예의 매력을 널리 알릴 것”이라 말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피겨 김유재, 시즌 첫 주니어그랑프리
서 동메달 획득
▲‘장에 귀화선수’ 원유민, IPC 선수위원
당선…“선수들 이야기 경청” /사진 뉴시스

▲이번 시즌 끝으로 FA 되는 손흥민,
‘이적료 0’원에 사우디 가나
▲韓사령관 후보였던 마쉬 감독의 캐나
다, 67년 만에 미국 원정 승



▲‘50홈런-50도루 도전’ 오타니, 클리
블랜드전서 무안타 침묵 /사진 뉴시스
▲김민규, KPGA 투어 신한동해오픈 최
종 4위…우승은 히라타 겐세이